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2024.4





CONTENTS

분야별사례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주네팔대사관	우리 기업 투자 인프라 사업에 대한 네팔 당국의 행정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지원	14
주니카라과대사관	우리 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민원 2건 해결	17
주다낭총영사관	민간 분쟁 상황, 주재국 정부 행정지도 유도	19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치안 불안 상황 하에서 국경 폐쇄로 인한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결	2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K-푸드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비관세 장벽 및 美 FDA 규제 대응 방법 안내	25
주리비아대사관	우리 건설기업의 西트리폴리(Tripoli West)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리비아 측의 국내절차 지연 해소	28
주말레이시아대사관	한국산 과일소주 및 막걸리 판매 및 수입 금지 해소	31
주미얀마대사관	기업 철수 지원	34
주미얀마대사관	폭탄 투하로 인한 기업 피해 복구 지원	36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공장 증설 운영 허가 발급 지원 노력	38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주재국 산업 보조금 수령 관련 측면 지원 및 인허가 신속 진행 등 지원	41
주벨기에대사관	러시아 철강 수입 규제 관련 원활한 통관 지원	44
주브라질대사관	주재국 공장 증설 정책지금 조달 애로 지원	46
주브루나이대사관	동포 기업인 체류 허가 지연 문제 해결	48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극동 러시아 지역 은행의 국제송금 동향 정보제공	5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한-러 우드펠릿 무역 거래 연계 지원	53
주사우디대사관	반덤핑 조사 대응 지원	55
주사우디대사관	우리 기업 사우다이제이션(현지인 의무고용) 관련 애로 해결지원	58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우리 식품(포도맛 막걸리) 수입업체 통관 지원	61
주상하이총영사관	42개월 만의 한·중(옌청) 직항편 복항	64
주상하이총영사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한·중 여객선 운항 재개	67
주스웨덴대사관	거주 허가 및 비자 관련 애로 해소 지원	70
주스페인대사관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진출 지원	72
주아르빌분관	쿠르드 지역 E-Visa(도착비자) 발급 재개 지원	74
주아르헨티나대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부보 한도 증가 지원	77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수입통관 애로 지원	79
주아르헨티나대사관	해외 투자기업 인정 지원	81
주알제리대사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준공 협상 지원	83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재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	86
주우한총영사관	우리 기업 외환 반입에 따른 중국 지방정부의 벌금 부과 문제 해결	88
주우한총영사관	중국 현지 은행과 우리 기업 간 대출금 상환 관련 법적 분장 미연 방지	90
주이집트대사관	부당 관세 부과 철폐 지원	92
주이집트대사관	투자기업의 통신망 복구 지원	94
주이집트대사관	현지 프로젝트 국내 인력 파견 지원	96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수입 규제로 인한 쿼터 승인 지연 해소	97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수입통관 애로 해결 지원 주요 사례	99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국계 보험사 협회 설립을 위한 대사관 추천서 신속 발급	101
주인도대사관	A사에 대한 은행지급보증(Bank Guarantee) 환급 지원	104
주인도대사관	법인세 선납 환급금 업무처리 지연 해결	107
주자메이카대사관	우리 기업인 고용 허가 발급 애로 해소 지원	109
주첸나이총영사관	현지 진출기업 세금 분쟁 사건 해결 지원	111
주칠레대사관	기업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 관련 정부 승인 지원	114
주칠레대사관	기업의 지분 매각 관련 원천세 환급 지원	116

주카타르대사관	카타르 고속도로 건설 사업 현안 해결 지원	118
주쿠웨이트대사관	쿠웨이트 국제공항 터미널4(T4) 운영 연장계약 체결 지원	120
주타지키스탄대사관	태양광 부품 소재 생산 우리 기업투자 진출 지원	123
주태국대사관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통해 0% 관세율 적용 조치 완료	127
주튀르키예대사관	현지 진출 기업 반덤핑 제소 및 수입관세 인상 관련 지원	130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우리 원양어업 기업의 파푸아뉴기니 해역 입어권 협상 타결 지원	133
주폴란드대사관	기업 주재원과 가족의 주재국 거주증 신속 발급을 위한 지방정부-기업 간 간담회 개최	136
주프랑스대사관	한불 배터리 산업 협력을 위한 비자 지원	139
주호주대사관	우리 기업의 주재국 LNG 수출제한제도 개정 대응 지원	142
주호치민총영사관	기업 사업 범위 확대 인허가 해결 지원	145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148

Ⅱ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주미얀마대사관	진출 은행 예치금 회수 지원	152
주밀라노총영사관	우리 기업의 사기 피해 사건 관련 지원	154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A사의 발전소 미수금 분쟁 해결 지원	157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재국 외환 부족에 따른 수출 대금 지연 해결 지원	160
주우한총영사관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미수금 회수 관련 애로사항 해결	162
주이집트대사관	프로젝트 미수금 지급 지원	164
주카라치분관	한전 KPS 미수금(운영 대금) 해결 지원	166
주탄자니아대사관	수출 기업의 미수금 해결 지원	168
주파나마대사관	우리 기업 A사의 수주 사업 미수금 문제 해결	170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사례

주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	174
주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전력시장 진출 지원	177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변전소 건설사업 수주 지원	180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공관 지원을 통한 전동차 공급 정부조달 사업 수주 성사	18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우리 기업의 美 지역 바이오·의료분야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184
주밀라노총영사관	푸른 꽃게 수입 관련 우리 기업 지원	187
주사우디대사관	사우디 투자부 협약을 통한 중소벤기업공단 GBC 개소 및 초기 진출 추진 기업 사무실 무상 제공	190
주세르비아대사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분야 진출 지원	193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코스타나이 A사 조립공장 건설 지원	195
주케냐대사관	한국 식품 홍보 행사 개최를 통한 케냐 내 우리 식품 기업 수출 제고 모색	198
주키르기즈공화국대사관	한-키르기즈 비즈니스 포럼 개최	200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우리 기업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박 건조 계약 체결	202
주파나마대사관	파나마 우하 하저터널 공사 수주 지원	206

IV

해외 취업·창업 지원 사례

주뉴질랜드대사관	주요 도시 취업박람회 및 멘토링 행사 개최	210
주라오스대사관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 대상 우리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212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우리 한인 청년 대상 취업지원워크숍 개최	215
주시드니총영사관	우리 청년 해외 취업 및 호주 내 우리 기업 우수 인재 채용 지원	218

주시애틀총영사관	IT분야 대학생 대상 취업 멘토링 설명회(Career Mentoring) 개최(2023.11.11.)	221
주시애틀총영사관	[창발 테크 서밋 개최(2023.10.23.)	224
주싱가포르대사관	해외 취업전략 세미나 및 멘토링 행사 개최	227



법률자문 서비스 주요 사례

주멕시코대사관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지원	232
주이집트대사관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원	234
주이집트대사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회 등록 지원	236
주인도대사관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 간 자금거래 법률자문	238
주파나마대사관	주재국 노동 허가 법령 개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지원	240
주호치민총영사관	투자법 상 자본금 관련 법률자문	242

VI

기타 지원 사례

주밀라노총영사관	베네치아 보트 생산업체의 한국산 모터 수입 문의	246
주벨기에대사관	세계관세기구(WCO) HS CODE 분쟁 지원	248
주수단대사관	무력 분쟁 정세 정보 공유 등 기업지원 강화	250
주시애틀총영사관	서북미 한국 스타트업 지원 협의회 발족	253
주알마티총영사관	심켄트 발전소 건설 지원	255
주알마티총영사관	알마티 공장 건설 지원	257
주인도대사관	인도진출 한국기업 CSR 우수사례집 발간	259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사기 피해 예방	261
주탄자니아대사관	광물 수입 기업의 사기 피해 해결 지원	264

CONTENTS

국가별사례

주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	174
주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전력시장 진출 지원	177
주네팔대사관	우리 기업 투자 인프라 사업에 대한 네팔 당국의 행정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지원	14
주뉴질랜드대사관	주요 도시 취업박람회 및 멘토링 행사 개최	210
주니카라과대사관	우리 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민원 2건 해결	17
주다낭총영사관	민간 분쟁 상황, 주재국 정부 행정지도 유도	19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치안 불안 상황 하에서 국경 폐쇄로 인한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결	22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변전소 건설사업 수주 지원	180
주라오스대사관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 대상 우리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21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K-푸드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비관세 장벽 및 美 FDA 규제 대응 방법 안내	25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공관 지원을 통한 전동차 공급 정부조달 사업 수주 성사	182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우리 기업의 美 지역 바이오·의료분야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184
주리비아대사관	우리 건설기업의 西트리폴리(Tripoli West)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리비아 측의 국내절차 지연 해소	28
주말레이시아대사관	한국산 과일소주 및 막걸리 판매 및 수입 금지 해소	31
주멕시코대사관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지원	232
주미얀마대사관	기업 철수 지원	34
주미얀마대사관	진출 은행 예치금 회수 지원	152
주미얀마대사관	폭탄 투하로 인한 기업 피해 복구 지원	36
주밀라노총영사관	베네치아 보트 생산업체의 한국산 모터 수입 문의	246
주밀라노총영사관	우리 기업의 사기 피해 사건 관련 지원	154

주밀라노총영사관	푸른 꽃게 수입 관련 우리 기업 지원	187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공장 증설 운영 허가 발급 지원 노력	38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우리 한인 청년 대상 취업지원워크숍 개최	215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	주재국 산업 보조금 수령 관련 측면 지원 및 인허가 신속 진행 등 지원	41
주벨기에대사관	러시아 철강 수입 규제 관련 원활한 통관 지원	44
주벨기에대사관	세계관세기구(WCO) HS CODE 분쟁 지원	248
주브라질대사관	주재국 공장 증설 정책자금 조달 애로 지원	46
주브루나이대사관	동포 기업인 체류 허가 지연 문제 해결	48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극동 러시아 지역 은행의 국제송금 동향 정보제공	51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한-러 우드펠릿 무역 거래 연계 지원	53
주사우디대사관	반덤핑 조사 대응 지원	55
주사우디대사관	사우디 투자부 협약을 통한 중소벤기업공단 GBC 개소 및 초기 진출 추진 기업 사무실 무상 제공	190
주사우디대사관	우리 기업 사우다이제이션(현지인 의무고용) 관련 애로 해결자원	월 58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우리 식품(포도맛 막걸리) 수입업체 통관 지원	61
주상하이총영사관	42개월 만의 한·중(옌청) 직항편 복항	64
주상하이총영사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한·중 여객선 운항 재개	67
주세르비아대사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분야 진출 지원	193
주수단대사관	무력 분쟁 정세 정보 공유 등 기업지원 강화	250
주스웨덴대사관	거주 허가 및 비자 관련 애로 해소 지원	70
주스페인대사관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진출 지원	72
주시드니총영사관	우리 청년 해외 취업 및 호주 내 우리 기업 우수 인재 채용 지원	218
주시애틀총영사관	IT분야 대학생 대상 취업 멘토링 설명회(Career Mentoring) 개최(2023.11.11.)	221
주시애틀총영사관	서북미 한국 스타트업 지원 협의회 발족	253
주시애틐총영사관	[창발 테크 서밋 개최(2023 10 23)	224

주싱가포르대사관	해외 취업전략 세미나 및 멘토링 행사 개최	227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	A사의 발전소 미수금 분쟁 해결 지원	157
주아르빌분관	쿠르드 지역 E-Visa(도착비자) 발급 재개 지원	74
주아르헨티나대사관	무역보험공사 보험부보 한도 증가 지원	77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수입통관 애로 지원	79
주아르헨티나대사관	해외 투자기업 인정 지원	81
주알마티총영사관	심켄트 발전소 건설 지원	255
주알마티총영사관	알마티 공장 건설 지원	257
주알제리대사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준공 협상 지원	83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재국 외환 부족에 따른 수출 대금 지연 해결 지원	160
주에티오피아대사관	주재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	86
주우한총영사관	우리 기업 외환 반입에 따른 중국 지방정부의 벌금 부과 문제 해결	88
주우한총영사관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미수금 회수 관련 애로사항 해결	162
주우한총영사관	중국 현지 은행과 우리 기업 간 대출금 상환 관련 법적 분장 미연 방지	! 90
주이집트대사관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원	234
주이집트대사관	부당 관세 부과 철폐 지원	92
주이집트대사관	투자기업의 통신망 복구 지원	94
주이집트대사관	프로젝트 미수금 지급 지원	164
주이집트대사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회 등록 지원	236
주이집트대사관	현지 프로젝트 국내 인력 파견 지원	96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수입 규제로 인한 쿼터 승인 지연 해소	97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수입통관 애로 해결 지원 주요 사례	99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국계 보험사 협회 설립을 위한 대사관 추천서 신속 발급	101
주인도대사관	A사에 대한 은행지급보증(Bank Guarantee) 환급 지원	104
주인도대사관	법인세 선납 환급금 업무처리 지연 해결	107

주인도대사관	인도진출 한국기업 CSR 우수사례집 발간	259
주인도대사관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 간 지금거래 법률자문	238
주자메이카대사관	우리 기업인 고용 허가 발급 애로 해소 지원	109
주첸나이총영사관	현지 진출기업 세금 분쟁 사건 해결 지원	111
주칠레대사관	기업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 관련 정부 승인 지원	114
주칠레대사관	기업의 지분 매각 관련 원천세 환급 지원	116
주카라치분관	한전 KPS 미수금(운영 대금) 해결 지원	166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사기 피해 예방	261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코스타나이 A사 조립공장 건설 지원	195
주카타르대사관	카타르 고속도로 건설 사업 현안 해결 지원	118
주케냐대사관	한국 식품 홍보 행사 개최를 통한 케냐 내 우리 식품 기업 수출 제고 모색	198
주쿠웨이트대사관	쿠웨이트 국제공항 터미널4(T4) 운영 연장계약 체결 지원	120
주키르기즈공화국대사관	한-키르기즈 비즈니스 포럼 개최	200
주타지키스탄대사관	태양광 부품 소재 생산 우리 기업투자 진출 지원	123
주탄자니아대사관	광물 수입 기업의 사기 피해 해결 지원	264
주탄자니아대사관	수출 기업의 미수금 해결 지원	168
주태국대사관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통해 0% 관세율 적용 조치 완료	127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우리 기업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박 건조 계약 체결	202
주튀르키예대사관	현지 진출 기업 반덤핑 제소 및 수입관세 인상 관련 지원	130
주파나마대사관	우리 기업 A사의 수주 사업 미수금 문제 해결	170
주파나마대사관	주재국 노동 허가 법령 개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지원	240
주파나마대사관	파나마 운하 하저터널 공사 수주 지원	206
주파푸아뉴기니대사관	우리 원양어업 기업의 파푸아뉴기니 해역 입어권 협상 타결 지원	133
주폴란드대사관	기업 주재원과 가족의 주재국 거주증 신속 발급을 위한 지방정부-기업 간 간담회 개최	136
주프랑스대사관	한불 배터리 산업 협력을 위한 비자 지원	139

주호주대사관	우리 기업의 주재국 LNG 수출제한제도 개정 대응 지원	142
주호치민총영사관	기업 사업 범위 확대 인허가 해결 지원	145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148
주호치민총영사관	투자법 상 자본금 관련 법률자문	242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사례



네팔대사관

우리 기업 투자 인프라 사업에 대한 네팔 당국의 행정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개발 사업에 투자 및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 A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행정 절차 처리 에 대한 네팔 정부 기관의 비협조로 어려움에 당면
 - 수력발전소 완공 후 운영 과정에서 네팔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명시된 상업 운전 달성 기한(COD)을 준수해야 하나, 동 기한이 실제 예상 완공 시점과 상당히 근접하여(4개월 차) 세금 감면 혜택 보장이 불확실한 위험
 - 또한, 동 사업에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국제 금융기관들이 네 팔 정부와 체결한 2개의 계약(정부보증계약 및 전력구매계약) 상에 명시된 상업 운전 개시일이 서로 다른 점을 문제 삼고, 네팔 정부와 협상하여 이를 일치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자금 지급을 연기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1-6월 A사는 공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네팔 정부에 세금 감면 혜택 보장 요건인 상업 운전 달성 기

한을 1년 연장해 줄 것과 2개 계약상에 명시된 상업 운전 개시 일이 일치되도록 변경해 줄 것을 네팔 정부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

- A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네팔 정부 기관을 접촉하면서 장기 간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 네팔 정부 기관의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자, A사는 주네팔대사관을 찾아와 해당 사안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2-7월 주네팔대사관은 네팔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동 사업이 우리 기업의 최대 對 네팔 투자 사업임을 설명하고, 양국간 협력 및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네팔 당국이 적극적 협조와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
 - 2023.2월 및 4월 산업부 장관 면담
 - 2023.6월 재무부 장관 면담
 - 2023.7월 에너지부 장관 면담
 - 2023.7월 전력청장 면담

4. 공관 조치 결과

- 2023.7월 네팔 당국에서 세금 감면 혜택 요건인 상업 운전 달성 기한 연장 관련 A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1년 연장 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해소
- 2023.8월 네팔 당국에서 A사의 요구대로 2개의 계약서상 상업 운전 개시일을 일치화해 줌. 이후 국제 금융기관이 투자금을 지급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행정절차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현지우리 공관이 유관기관 및 고위 인사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니카라과대사관

우리 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민원 2건 해결

1. 사례 개요

- 2023.1월 및 7월 우리 기업 A사 및 B사는 각각 니카라과 국세 청(Dirección General de Ingreso)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 청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주니카라과대사관의 지원을 요청
 - 상기 기업들은 사업상 각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이 가능한 니카라과 자유무역공단(Zona Franca) 내에 입주 중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 및 B사는 문제 발생 이후 국세청에 전화, 이메일, 서한 발송 등을 통해 문제 발생 원인을 문의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2-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 면제도 요청하지 못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니카라과대사관은 민원 접수 직후 니라카과 외교부에 외교 공 하을 발송(니카라과 국세청 참조)하여 A사 및 B사의 민원을 상 세히 설명하고, 외교부-국세청 간 공조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 결해 줄 것을 요청

- 상기와는 별도로 주니카라과대사는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면담 계기, 상기 우리 기업의 민원을 상기시키며 조속한 처리를 재 차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A사 및 B사 모두 주니카라과대사관의 문제 해결 요청 이후 2주 이내에 민원 해결 완료(향후 부가가치세가 다시 면제될 수 있도 록 조치 완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문제 발생 후 기업들의 자체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초기부터 공관-기업 간 유기적인 협 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해결에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

다낭총영사관

민간 분쟁 상황, 주재국 정부 행정지도 유도

1. 사례 개요

■ 2022.10월 (애로사항 최초 접수) 베트남 '가' 지역에 위치한 우리 기업 A는 베트남의 민간 개발 산업단지(B공단)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었음. A사 대표자에 따르면, B공단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적법한 토지 사용 허가도 취득하지 않은 채 A사에 계약금 전액 납부를 요구해 왔음. 그런데 이는 '토지 사용 허가 취득을 완료한 뒤 잔금을 지불한다'는 계약 내용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A사가 응하지 않자, B공단 측은 건설현장을 무단 점거하고 공사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2.12월 A사는 B공단에 계약 잔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타협안을 제시해 보았으나, B공단은 "(자신들이) 토지 사용 허가 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진행했으며, 허가 발급은 '가' 지역 지방 정부 소관 사항이므로, 허가 지연을 이유로 잔금 납부를 지연시 킬 수 없다"라며 타협안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 방해 행위를 계속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2.12월 주다낭총영사관은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 베트남 주재 우리 변호사와 A사가 미리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
- 2023.1월 주다낭총영사는 A사 대표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익일 '가' 지역 지방정부 지도자 면담 시 A사 사례 해 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면담 직후 별도 공한을 발송해 문제 해결 지원을 다시 한번 촉구

4. 공관 조치 결과

- 2023.2월 '가'지역 관청에서 A사 공사 현장을 방문 시찰
- 2023.3월 '가'지역 관청은 A사와 B공단을 대상으로 두 차례 회의를 소집, 당사자 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토지 사용 허가 취득을 위한 보완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등 행정절차 속행을 지원
- 2023.7월 B공단은 토지 사용 허가 취득 완료 후 잔금을 지급받 기로 하는 등 태도를 완화
- 2024.1월 A사가 토지 사용 허가 취득을 완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통상 민간 분쟁은 정부의 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법령, 관행에 덜 익숙한 우리 기업으로서는 현지 민간과의 마찰 발생 시 약자의 위치에 놓이고, 정부 기관에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 에 처함.
- 다만, 정부 기관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상황 해소를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주지시키는 등 행정지도 를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우리 공관은 주재국 정부가 민간 분쟁 해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
- 더욱이 동 사안의 경우, 분쟁의 발단이 정부의 허가 절차 지연이 었기 때문에, 현지 정부에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분쟁의 본질이 주재국 정부의 허가 지연이었다 하더라 도, 그 원인이 '절차 미비', '법령위반' 등 민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주재국에 "허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치안 불안 상황 하에서 국경 폐쇄로 인한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2023.9월 도미니카공화국과 겸임국 아이티 간 국제하천 분쟁에 따른 국경 전면 폐쇄로 인해 아이티 주재 한국 기업 A사 소속 한국인 직원의 이동 및 생필품 조달 등에 상당한 어려움 발생
 - 아이티의 치안 불안 및 열악한 생활 여건 등에 대한 고려로 A 사 한국인 직원 약 40명의 가족이 아이티 국경에 인접한 도미 니카공화국 북부 지역에 체류 중이며, 해당 직원들은 주말마다 양국을 오가면서 생활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9월 기업 자체적으로 국경 통과를 시도하였으나 국경을 통과하려는 아이티 현지인들이 너무 많아 도미니카공화국 이민국 심사 통과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민국 직원들이 현장 통제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주도미니카대사관에 조력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월 주도미니카대사관 차석 영사는 도미니카공화국 외교 부 차관을 면담하여 도미니카공화국-아이티 육로국경 폐쇄로 인 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차원에서 동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 특히, 국경 통과 시 이민국 심사 과정에서 아이티인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섞여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기업인들에게는 별도 심사대(패스트 트랙) 적용 등 편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3.9월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30일간 유효한 특별국경통과 허가서 발급 방침을 결정하여 주도미니카대사관에 통보
- 2023.10월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주도미니카대사관이 제출한 한국기업인 41명에 대한 허가서 발급
- 2023.11월 도미니카공화국 국경 지역 이민국에서 한국 기업인 들을 아이티 노동자와 분리하여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입/ 출국 처리 중
 - 또한, 특별국경통과 허가서 30일 만료에 따른 재갱신 절차 진행 등 지속 사후 관리 실시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극도로 치안이 불안정한 겸임국 아이티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우리 기업이 국경 폐쇄로 인해 겪고 있는 생활상 어려움과 국경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가능성 등 문제를 고위급 인사(외교부 차관) 면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지속적으로 외교 공한 발송과 유선 및 서면 접촉을 통해 필요 사항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우리 기업 애로를 해결
- 특히, 아이티 주재 우리 기업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아이티의 경제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부자재 등을 도미니카공화국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에도 상당 부분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재국 정부에 상기시키고, 이를 도미니카공화국이 인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K-푸드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비관세 장벽 및 美 FDA 규제 대응 방법 안내

1. 사례 개요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자국중심주의 등 미국을 비롯한 각 국 가의 비관세 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의 비관세장벽 핵심인 미 식품의약국 (FDA)의 규제강화 및 대비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시 리즈로 기획하여 개최

2. 기업의 대응조치

■ 미국진출 의사가 있는 우리나라의 다수 기업이 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과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 등 협조를 주로스앤젤레스총 영사관에 지속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2023.4.27.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한 FDA 권한 강화와 동시에 화장품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2022년 12월 29일 제정된 한 "화장품규제현대화법"에 대하여 현지 FDA 인증 컨설팅 대표를 연사자로 섭외하여 온라인 세미나 개최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2023.7.26. FDA 현직자를 강연자로 섭외하여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주요 규칙 7가지(식품 예방통제, 동물사료 예방관리, 농산물 안전성, 수입식품 안전 검증, 제3자 인증, 위생적 운송, 고의적 식품 변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미 FDA 비관세장벽 세미나" 개최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2023.11.9. FDA에서 강화될 예정인 식품이력추적제(Food Traceability) 규정 및 예상되는 집행 내 용,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및 주의 사항, 기업이 제출하고 보 관해야 하는 추적기록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미 FDA 식품이력추적제 세미 나" 개최

4. 공관 조치 결과

-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세미나 개최 결과
 - 총 392명 등록 및 284명 참여
 - 온라인 세미나 동영상 및 발표 자료 홈페이지 게재
 - 참여 우리 기업과 해당 사안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 FDA 비관세장벽 온라인 세미나 개최 결과
 - 총 157명 등록 및 118명 참여
 - 온라인 세미나 동영상 및 발표 자료 홈페이지 게재
 - 참여 우리 기업과 해당 사안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 FDA 식품이력추적제 온라인 세미나 개최 결과
 - 총 116명 등록 및 91명 참여
 - 온라인 세미나 동영상 및 발표 자료 홈페이지 게재
 - 참여 우리 기업과 해당 사안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K-푸드 확산 등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 하고 있는 동시에 높아지는 FDA 비관세장벽 하에서 국내외 수 출입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리비아대사관

우리 건설기업의 西트리폴리(Tripoli West) 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리비아 측의 국내절차 지연 해소

1. 사례 개요

- 2017.6월 리비아 임시통합정부(GNA(2021.3월 이전) 및 GNU (2021.3월 이후)) 측은 리비아 내전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근거로 들며 내전 격화(2014년 하반기) 이후 중단된 우리 건설기업 A사의 西트리폴리(Tripoli West) 발전소 건설 작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요청
- 2021.6월 이에 따라 우리 정부 합동 치안점검단이 리비아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다각적 검토 끝에, 마침내 A사 필수인력에 대해 여권의 예외적 사용을 허가하기로하고, A사는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공사재개 준비
- 2023.5월 그러나 애당초 리비아 측에서 공사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재개를 위한 자국법상의 예산 확보 조치를 간과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공사재개가 난항을 겪었던바, 주리비아대사관은 리비아 당국과의 적극적 교섭에 나서 그 결과로 공사재개를 위한 리비아 측 예산 확보를 달성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2.8월 A사 측은 1년여 동안 공사재개를 위한 현장점검 조치를 마치고 공사재개를 위한 원칙적 합의문(protocol)에 서명했으나, 리비아 측의 예산 확보 미흡으로 공사재개를 위한 계약 변경에는 이르지 못하여, 이후 발주처인 전력청(GECOL) 및 감독기관인 총리실 등을 상대로 조속한 예산확보를 수차 촉구하였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하자 연말경 주리비아대사관에 지원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3.6.(월) 주리비아대사는 리비아 감사원장을 면담해 리비아 총리실이 이미 약속한 1단계 공사대금 2천3백만 미불의 예산 반 영 승인을 촉구한바, 리비아 감사원장은 우리 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하며 조속한 승인을 약속

4. 공관 조치 결과

- 2023.5.21.(일) 상기와 같은 주리비아대사관의 조치에 따라 리비아 감사원 측은 약속대로 1단계 공사대금 2천3백만 미불의 예산 편입을 승인한바, 임시통합정부(GNU) 각료회의는 동 예산(안) 의결
- 2023.6.22.(목) 상기 내각 의결을 기초로 발주처인 리비아 전력 청(GECOL)과 A사 간의 변경 계약 체결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3년여 동안 리비아 내에서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지 않는 등 무장세력 간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는 유지되고 있어서 치안 상태 자체에는 다소 간의 개선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리비아 당국의 재정확보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관찰
- 따라서 리비아 당국이 발주하는 각종 인프라 구축 내지 복구 사업에 있어 실질적 이행 능력 특히 재정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 필요
- 향후 여사한 문제가 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리비아대사관 은 당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필요시 적 극 지원 예정

말레이시아대사관

한국산 과일소주 및 막걸리 판매 및 수입 금지 해소

1. 사례 개요

- 말레이시아 보건부(MOH)는 주류 전반에 대한 전수 검사를 사전 예고도 없이 2022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공공 보건상 이유로 2022년 6월부터 한국산 과일소주 및 막걸리(일반 및 과일)를 압수하고 추가 수입을 금지
 - 한국산 과일소주 및 막걸리(일반 및 과일)는 수년 동안 문제없이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되었으나,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알코올 도수가 식품 규정(Food Regulations 1985)에서 규정된 도수보다 낮아 허용된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
 - * 말레이시아에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주류 관할 수입허가 관 청인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전년에 수입허가 신청하고 수입
 -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은 주류의 내용물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유통할 수 있는 주류의 유형을 명시하고 동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행 식품 규정은 소주는 알코올 함량을 16% 이상, 막걸리 알코올 함량을 12%~20%로 규정
 - 말레이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과일소주(알코올 함량 12~13%대, 전체 말레이시아 소주 수출량의 60% 이상을 차지), 막걸리(일반 막걸리 6%대, 과일막걸리 3%대)의 알코올 함량은 규정보다 낮음.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2년 하반기 말레이시아 수입업자들이 주류수입업자 협회를 통해서 MOH와 간담회 진행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MOH와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MOH와 세차례 회의(2022.6.29., 2022.8.5., 2022.10.11.) 실시 및 식품 규정 개정요청서 전달 (2022.7.26.) 등 대응조치 실시
 - * (1) 주재국 식품 규정 위반으로 통관 보류된 주류의 한시적 통관 허용 (2) 식품 규정의 소주 및 막걸리 관련 알코올 함량 기준 하향 조정
 - 그러나 MOH는 통관 보류된 주류의 한시적 통관 허용 요청에 대한 거부를 통보(2022.10.25.)하고 관련 식품 규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만 설명
- 이에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WTO 메커니즘을 활용해 주재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EU 및 일본 대사관*과 공조하여 3개국이 주재국 식품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 촉구 내용을 WTO에 제기하도록 합의
 - * EU는 일부 아페리티프, 일본은 매실주 등이 식품 규정 위반으로 수입 금지 조치 대상이 됨.
 -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은 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에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 및 주류 관련 통관 절차의 문제점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WTO에서 제기해 줄 것을 건의 하고 본부에 관련 자료 제공
 - 식약처는 주말레이시아대사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말레이시아의 식품 규정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라는 의견을 WTO 무역기술

장벽(TBT)위원회에게 제출(2022.11.24.)하고 주제네바 대표부는 WTO의 말레이시아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 TPR) 회의(2023.2.8.~10.) 계기에 관련 애로 사항 제기

4. 공관 조치 결과

MOH는 2023.4월 식품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식약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알코올 기준을 하향 조정(소주 16% 이상 → 10% 이상, 막걸리 16% 이상 → 3% 이상)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본부 (식약처)에 송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위 사안과 같이 공공보건 등의 이유로 현지 정부가 우리 기업들 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 등 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는 개별 대사관이 협상하는 데 한계에 직면
 - 따라서 유사한 이슈가 있는 타국 공관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대응 방안 논의 등을 위해서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대사관 담당관 모임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공유할 필요 가 있음.
 - 또한 가능한 경우 해당 이슈를 WTO 등 국제적인 무대를 활용 하여 공론화하는 대응 방안도 고려 필요

미얀마대사관

기업 철수 지원

1. 사례 개요

- 미얀마의 경우 코로나 사태와 함께 2021.2.1.일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가 이어지며 기업활동이 어려워 일부 기업의 경우 철수가 불 가피한 상황이나 미얀마 군정은 외환 유출 등 사유로 철수에 협 조적이지 않음.
- 2023.6월 A사는 현지 법인 실적 악화로 철수를 추진하고자 철수 계획에 대한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으며 현지 기업과 합작계약도 종료 예정으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7월 미얀마 투자위원회 철수 승인 신청 이후 사무국 역할을 하는 투자기업관리국(DICA)과 협의하였으나 승인 여부 및 시기가 불투명하여 주미얀마대사관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8월 주미얀마대사관은 A사와 함께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국장 면담을 통해 관련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신속한 철수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2023.9월 주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부국 장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신속한 승인을 재차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0월 A사에 대한 철수 승인 안건이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고 최종 통보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례는 미얀마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 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미얀마대사관이 평소 구축한 우호적인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의 철수 승인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한 사례임.

미얀마대사관

폭탄 투하로 인한 기업 피해 복구 지원

1. 사례 개요

- 미얀마 샨주는 중국에 입접한 지역으로 군부와 반군 간 충돌로 정세가 악화되고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임.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4월 A사는 복구를 위해 지뢰 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나 방법이 없어 주미얀마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5월 주미얀마대사관은 A사 관계자를 면담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미얀마투자관리국(DICA) 면담을 통해 가능한 처리 방안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샨주 투자위원회를 통해 협조하기로 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5월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DICA) 부국장은 샨주 투자위 원회에 A사와 협의하고 지뢰매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지시함.
- 2023.5월 A사는 지뢰 매설 여부 확인 결과 지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구 작업을 시작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례는 미얀마의 특수한 교전 상황으로 인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로 주미얀마대사관에서 평소 구축한 우호적인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기업이 신속히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애로 를 해소한 사례임.

바르셀로나총영사관

공장 증설 운영 허가 발급 지원 노력

1. 사례 개요

■ 2023.11월 우리 기업 A사는 지방 관계 당국의 환경 평가 관련 심사가 계속 지연되어 공장 증설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총영사관의 지원을 요청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1.8월 공장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세운 A사는 공장이 소재 한 지방 관계 당국으로부터 도시계획 적합성 부문 관련해서는 허가를 받음.
- 2021.12월 A사는 공장이 소재한 지방 관계 당국에 환경 부문 관련 공장 증설 운영 허가 등을 요청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보 완 서류를 제출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2022년 말에 공장 증설 운영 허가 관련 신청 작업을 마침.
- 2023.10월 지방 관계 당국의 환경 부문 관련 심사가 지연되어 공장 증설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A사는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증설된 공장에서 시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카탈루냐 무역투자청에 대표이사 명의로 서한을 발송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1월 주바르셀로나총영사는 카탈루냐 기업노동부 장관과 면담하여 지방 관계 당국으로부터 공장 증설 관련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하는 A사의 상황과 우려 사항을 전하며 지방 관계 당국의 조속한 허가 발급을 요청함.
- 2024.2월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카탈루냐 기업노동부를 다시 한번 접촉하여 A사의 공장 증설 운영 관련 허가가 조속히 발급 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월 카탈루냐 기업노동부는 A사 공장 증설 운영 허가 관련 지체 되는 부분(전기, 대기질 부분 관련)을 확인하여 관련 심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동 부분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요청하였다고 답변함.
 - **2023.12월** 지방 관계 당국은 A사를 접촉하여 늦어도 2024. 3 월까지는 공장 증설 운영 허가가 발급될 것이라고 알림.
- 2024.2월 카탈루냐 기업노동부는 다시 한번 관련 지방 당국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함. 이후 A사는 관련 당국에서 A사에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하여 다음 날 동 보완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총영사관에 연락을 해왔는바, 조만간 지방 당국이 환경 평가 관련 심사 작업을 마무리하여 공장 증설 운영 허가를 발급해 줄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카탈루냐 기업노동부 및 무역투자 청과는 다르게 지방 소재 일선 관청에서의 관련 행정 처리가 빠 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환경 관련 영향 심사-평가를 중요시 하여 동 절차에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으로 파악됨.
- 주정부 관계자와 우리 기업인 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인들이 인허가 발급 과정 시 겪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등을 주정부 관계자에게 인지시키고, 관련 절차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임.

바르셀로나총영사관

주재국 산업 보조금 수령 관련 측면 지원 및 인허가 신속 진행 등 지원

1. 사례 개요

- 2023.7월-8월 우리 기업 B사는 24년 진행될 신규 공장 건설 관련 협력사 직원을 포함 대규모 전문 인력들이 투입될 예정으로 동인들의 신속한 비자 발급 문제 등을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과 상담함. 총영사관은 해외기업 F사가 주재국 주력 육성 산업 보조 금(2차)을 신청한 뉴스를 B사에 전하면서 주재국 주력 육성 산업 보조금 신청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함.
- 2023.11월 B사는 총영사관에 신규 공장의 24년도 상반기 착공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방환경청(OTA)의 조속한 승인이 필요하고, 신규 공장의 전기 인입 관련 현지 전력회사의 110kV 변압기 발주-입고에 너무 많은 기한이 소요된다며 카탈루냐 기업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구할 수 있는지 우리 총영사관에 문의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7월-8월 B사는 현지 컨설팅회사를 통하여 주재국 주력 육성 산업 2차 보조금을 신청하고, 투자 발표 시 한국에 방문한 기업노동부 관계자 등과 동 문제를 협의함.

■ 2023.9월-10월 B사는 신규 공장의 24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지방정부 기관에 관련 인허가 등을 요청하고 신규 공장의 전기 인입과 관련하여 현지 전력회사와 협의를 진행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월 주바르셀로나총영사는 카탈루냐 주재 스페인 중앙정부 대표와 면담하여, B사의 투자가 주재국의 주력 육성 산업 정책에 부합됨과 경제적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에 주력육성산업 지원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 또한,향후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B사 및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요청함.
- 2023.11월 주바르셀로나총영사는 카탈루냐 기업노동부 장관과 면담하여, 카탈루냐주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 분야에 우리 B 사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동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당 지방 관청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의 조속한 승인과 현지 전력회사의 전기 인입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월 카탈루냐 주재 스페인 중앙정부 대표는 B사의 투자 규모가 크고 대다수가 고급 기술 인력들이어서 대기업 비자 발급 요건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함.

- 2023.11월 카탈루냐 기업노동부 장관은 서한으로 당초 초기 검토 당시 B사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정부가 지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4천9백만 유로 상당의 주력 육성 산업 2차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고 알려옴.
- 2024.1월 카탈루냐 기업노동부 관계자와 접촉하여, 도시개발계획 변경(안) 관련 지방환경청(OTA)의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전기 인입 관련해서도 현지 전력회사가 B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것을 B사로부터 확인함.

- B사의 자체적인 노력, 총영사관의 측면 지원,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키 위한 카탈루냐 주정부 측의 의지, 중앙정부 대표 등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 초기에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주재국 산업육성 지원금 배정이 큰 규모로 우리 기업에게 이루어짐.
- 향후 공장 건설 진행을 위해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들의 비자 발급 관련 카탈루냐 주재 중앙정부 대표의 지원 약속은 받아내었지만, 실질적 차원에서 잘 이행되어 나가는 것은 또다른 사안이므로 관련하여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 대표부 측과협의해 나가면서 우리 B사 전문 인력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벨기에대사관

러시아 철강 수입 규제 관련 원활한 통관 지원

1. 사례 개요

- EU는 2023년 10월부터 대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철 강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철강 수입기업에 러시아산 철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지시
- 하지만, EU 회원국 내부 이견으로 10월이 되어서도 EU 집행위 조세총국(EU TAXUD)에서 산하 세관에 지침을 전달하지 않아 통관 현장에서 우리 기업과 현지 세관과의 마찰과 통관 분쟁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한국철강협회와 현지 철강수입업체에서 주벨기에대사관에 지원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2. 조세총국 러시아 제재 담당관을 면담,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조세총국의 조속한 지침 요청

■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세관 검사 통과를 위한 각종 서류(Mill Test Certificate 등)의 종류를 파악하여 기업에 전파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0.3. EU 집행위 조세총국은 지침을 발표, 주벨기에대사 관은 지침 내용을 신속하게 철강 관련 기업과 협회에 공지하고 세관 통과를 위한 서류 준비 요청
- 10월 초(8일부터 10일 사이) 일부 기업에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 였으나, 주벨기에대사관의 신속한 대처와 기업들의 서류 준비로 통관 재개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EU 집행위 조세총국과 사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조 세총국에서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기에 우리 기업 애로를 전달하여 통관 애로를 비교적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는바, 평소 당면 현안이 없더라도 지속해서 주 요 기관/인사와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브라질대사관

주재국 공장 증설 정책자금 조달 애로 지원

1. 사례 개요

- 2022.10월 브라질 B주 소재 우리 기업 A사는 브라질에 진출하여 2014년 공장을 가동하면서 시장 진입에 성공 및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면서, 제품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주재국의 고금리 부담으로 정책금융 조달에 애로가 있어 주 브라질대사관에 지원 협조를 요청함.
 - 브라질에서는 금리(기준금리: '23년 13.75%)가 세계 최대 수준 으로 고금리의 현지 금융 대신에 주재국 정부의 정책금리를 지 원받을 때 저금리(5% 내외)의 사업 자금 조달이 가능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2.10월 주브라질대사관의 A사 공장 방문 계기 대사관 측에 자금 조달 애로를 개진하여 브라질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 대사관 지원을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2월 주브라질대사관에서는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차관보 면담시, A사의 공장 증설 등 A사의 제반 사업 지원을 요 청함.
- 2023.7월 주브라질대사관에서는 B주 주지사 면담 시, A사에 대한 제반 사업 지원을 요청하면서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협조· 지원을 강조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3월 우리 기업 A사가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 으로부터 공장 증설을 위한 기계류와 설비 등에 대한 시설자금 9천9백만 헤알(약 250억 원)을 융자 승인 얻음.

- 브라질의 고금리 및 높은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여 현지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바 브라질 연방 및 주 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우리 기업의 현지 정책자금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함.
- 우리 진출기업들이 현지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공관과 우리 기업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중 요함.

브루나이대사관

동포 기업인 체류 허가 지연 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2023.8월 브루나이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우리 국민 2인은 최근 체류 허가 갱신 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을 요청해 왔음. 이들은 절차에 따라 노동국 면담 및 사업장실사를 거쳤으나, 기한이 한참 지나도 갱신 허가가 나오지 않았으며, 임시신분증의 유효기간도 경과 되어 출국이나 대출 등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함.

특히, 2인 모두 65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였는바,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국이 더 이상 사업을 이유로 체류 허가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었음.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월 주브루나이대사관은 재정경제부 산업국과 내무부 노동국을 접촉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체류 허가 지연 배경을 문의하고, 신속한 갱신 허가를 요청하였음.

특히, 대사관은 면담을 통해 주재국의 체류 허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특정국 국민의 악용 사례가 적발되어 노동국과 재경부가 허가발급·갱신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재경부로부터 사업 관련 검토 시 면 밀히 검토하는 사항 및 기준에 대해 청취하였음.

한편, 민원인 중 1인의 신청이 노동국 검토 과정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한바, 노동국에 지체 없는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여타 1인의 경우에도 갱신 신청 서류에 사정 변경에 대한 설명 없이 기존에 기재하던 직급이 아닌 신규 직급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노동국에서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한바, 민원인이 신속히 노동국장과 인터뷰를 갖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3. 공관 조치 결과

- 2023.10월 우리 국민 2인은 주부르나이대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가 인터뷰 및 실사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그 결과 최대 2년 체류 허가 갱신이 완료되었다면서, 대사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함.
- 2023.12월 주부르나이대사관은 동포기업인간담회를 통해 동사례 및 주재국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검토 사항및 기준 등)들을 공유하고, 향후 체류 허가 갱신 신청 및 절차진행 시 유념할 것을 당부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기본적으로 체류 허가 등 비자에 관한 사항은 주재국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는 만큼 접근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상기와 같이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가운데,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사실이 아닌 루머로 인해 불안감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대사관으로서는 주재국 노동/산업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동포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사관이 파악할 수 있는 최신 규제 관련 정보나 동향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극동 러시아 지역 은행의 국제송금 동향 정보제공

1. 사례 개요

■ 2023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러시 아 은행의 외환거래 제한 및 러시아 당국의 외화반출 통제 등으 로 극동지역 현지 진출기업의 국제송금 등 어려움이 가중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년 현지 진출 기업들은 달러화, 유로화, 위안화 등 러 현 지 은행의 신규 계좌 개설 및 대한 송금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은행에 개별 문의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6-12월 블라디보스톡 코트라 무역관과 협조하여 매월 극 동 러시아 지역 주요 은행의 외환 계좌 개설 여부 및 국제송금 동향을 조사하여 진출 기업에게 정기 제공(총 4회)하고 있음.

- 극동 러시아 소재 8개 주요 은행의 신규 계좌개설 및 외환별 송금 가능 여부, 송금 및 환전수수료, 중계은행 등 구체적인 정 보 조사 후 제공

4. 공관 조치 결과

■ 2023.6-12월 공관에서 제공한 국제금융거래 정보를 고려, 현지 진출기업들이 계좌개설 및 국제 송금 시에 적절히 활용 중임.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요 은행별 국제송금 동향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악화된 외환거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지원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한-러 우드펠릿 무역 거래 연계 지원

1. 사례 개요

■ 2023.10월 러시아로부터 우드펠릿을 수입해 오던 국내 업체 A 사는 러 공급업자의 가격 인상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체 공급자를 찾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당관에 타 공급업체 정보를 요청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8-10월 상기 A사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내에서 대체 공급업체를 물색하고자 러시아 내 한인 기업가 등 루트를 통해 정보 취득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적정 공급업체를 찾는데 난항을 겪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월 (정보 제공) 1차로 러 극동지역 및 사할린지역 소재 우드펠릿 생산·공급업체를 조사하여 A사에 관련 정보 제공함.

- 2023.10월 (공급선 추가발굴) 위와 별도로 러시아산 우드펠릿 의 한국 수출을 새롭게 모색 중이던 극동지역 진출 무역업체 B 사에게 추가적인 공급자 발굴 협조 요청함.
 - ※ 평소 진출기업과의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B사가 최근 모스크바 전시회에 참가해 러측 우드펠릿 주요 공급사와 협력 채널을 기 구축하고 있음을 인지
- 2023.11월 (상호 연계) 국내 수요 업체 A사와 극동지역 진출업 체 B사간 우드펠릿 공급자 발굴 및 상호 무역 거래를 위한 연계 지원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상기 A사와 B사, 러시아 업체 C사 간 우드펠릿 제품규격, 가격, 공급 규모 등 상세 조건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말경 최종 제품공급 계약 체결

- 해외 진출업체와 국내 수요기업 간 애로사항을 상호 연계,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품 공급자를 구축하는 등 상생적인 무역 거래 알선
- 평소 해외 진출한 지상사 및 교민 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동향과 경제 현안 이슈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 이번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매우 긴요했던 것으로 평가

사우디대사관

반덤핑 조사 대응 지원

1. 사례 개요

- 2023.11월 사우디 대외무역청(GAFT)에서 국제무역구제법(Law of Trade Remedies in International Trade) 제정 후 한국산 PVC 코팅 직물에 대한 반덤핑 우려 공한을 우리 공관으로 알려왔으며, 우리 공관은 본부에 즉시 보고(2023.11.29.)
 - GAFT는 12.4. 한국산 PVC 코팅 직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공한을 우리 공관으로 보내왔고, 우리 대사 관은 본부에 보고(2023.12.12.)

2. 기업의 대응조치

- 동제품의 사우디 최대 수출업체인 H사는 12.5. 주사우디대사관 대표 이메일을 통해 사우디 정부로부터 반덤핑 제소 사실 및 조 사에 응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
 - 이에, 주사우디대사관 상무관은 즉시 H사와 유선 연락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외교부와 산업부 담당자에게 메일 및 유선으 로 상황을 전파하고 대응 방안 모색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2월 당관 상무관은 반덤핑 조사 개시 사실 전문 보고 시, 주재국이 올해 제정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영문 버전을 입수해서 첨부하였으며, 관련 부처 및 업계의 대응을 요청 또한 주재국 주무부처 GAFT 반덤핑 담당자와 면담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4.1.2. (GAFT 면담) 당관 상무관은 Investigations in Dumping and Subsidy Department Fahad A. Altoraiqi 국장을 면담하여, ▲법령 제정의 취지, ▲현재 조사 중인 건, ▲한국산 PVC 제품 조사 현황 및 향후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진행을 요청

이에 대해 면담 결과 면담 상대방이 한국 측 우려에 공감하면서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언급

- 주재국은 최근 산업화,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미비한 무역구제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아랍어로 공개하기 때문에 영문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 또한 조사개시문을 아랍어로 전달해 오기 때문에 기업(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공관 차원에서 모든 법령과 공고문 등을 국영문으로 번역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가급적 협회·단체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

- 향후 가능한 경우 정부의 지원 또는 관련 협회·단체에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전파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의 표준화가 필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사우디대사관

우리 기업 사우다이제이션(현지인 의무고용) 관련 애로 해결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동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주재국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시스템상 '건설'이 아니라 '오일 및 가스탐사'로 잘못 등록되어 있어, 사우다이제이션 비율이 48%(건설의 경우 17%)로 과다하게 적용되어 비자 슬립 발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주사우디대사관에 협조 요청(2023.2월)
 - * 사우다이제이션(saudization) : 기업을 업종별 인원,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사우디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장 높은 Platinum부터 Green(High/ Medium/Low), Yellow, Red 등급으로 분류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주사우디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 전 2달여 동안 주재 국 인적자원사회개발부와 개별 협의하였으나, 진전이 없었음.
 -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계약서 일부 조항에 굴착(excavation)이 포함되어 있어, 동 조항 때문에 오일 및 가스 개발업체로 오해 를 받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2월 주사우디대사관은 A사의 국내 사업자등록증 및 사우디 상업등록증(CR) 등을 확인하고, 주사우디대사 명의로 ▲ A는 건설기업이며, ▲ 진행 중인 플랜트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 문제의 해결을 당부하는 협조서한*을 발송
 - * A사는 국내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종목이 '기술용역, 소프트웨어 사업, 토목건 축 및 플랜트 공사'로 되어 있고, 사우디 CR상 주택, 공항, 교량, 철도, 석유 화학 시설 등 건설로 등록되어 있음.
- 2023.3월 주사우디대사관은 협조서한 발송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우리 대사관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A사는 발주처의 유사 내용 공문 등을 가지고 주재국 인적자원사회개발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4. 공관 조치 결과

- 2023.4월 A사의 비즈니스 활동이 '건설'로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다고 구두 통보를 받았으며, 주재국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시스템에서도 변경된 것을 확인
- 2023.5월 5월초 기술적인 문제로 주재국 인적자원사회개발부 시스템상 A사의 블록비자*(block visa)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협 의를 거쳐 최종 해결 통보
 - * 블록비자(Block visa): 사우디 정부에서 자국 시장에 필요한 외국인력의 취업을 위해 해당 업체가 신청한 인원 중 일정 인원(쿼터)을 정해 인원수대로 일괄 발급하는 비자

- 사우디는 사우다이제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동 사 안은 계약서상 문구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나, 기업 차원의 협의 로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A사는 대사관 및 발주처의 서한 등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재국 인적자원사회개발부의 언급을 토대로 우리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우리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 앞으로도 주사우디대사관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제공해 나 갈 예정임.

상파울루총영사관

우리 식품(포도맛 막걸리) 수입업체 통관 지원

1. 사례 개요

- 2023.5월 주재국은 우리 식품(포도 맛 막걸리)에 대한 수입 부 적합 통보
- 2023.7월 또한 재심의에서 불허 판정을 받아 전량 폐기하게 된 상황
 - 이는 여타 바나나 맛 막걸리 등은 통과가 되었으나 포도 맛 막 걸리만 통과 불허된 상황으로 우리 공관이 주재국과의 면담 등 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존재
 - * 브라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 수출량 22년 대비 23년 5.5% 상승(17백 만불→20백만불)대비 막걸리 수입물량 급감 3만불('22) → 4천불('23)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11월 A업체(우리 식품 수입사, 동포 업체)는 포도 맛 막 걸리 제조사 앞으로 알코올 함량 변경(3%→4%)을 요청하였으나 브라질 시장을 위해서만 제조사 알코올 함량 변경이 어려운 상황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월 AT센터 상파울루법인과 공동으로 브라질 농림부 (MAPA)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하여, 포도 맛 막걸리 통과 불허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고 통관 가능 방안을 협의
 - 불허 사유 : 포도 주스를 함유한 막걸리와 와인을 동일하게 취급, 알코올 함량 미달(기준 4% 제품 3%)로 통관 불허
- 2023.11월 이후 브라질 농림부에서는 우리 관계 부처 또는 재 외공관에서 생산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해 줄 경우, 통관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 2023.12월 이에 우리 공관은 한국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재외 공관에서 포도 맛 막걸리에 대한 인증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 ⇒ 이후 포도 맛 막걸리 인증서 발급

4. 공관 조치 결과

■ 2024.1월 포도 맛 막걸리 신규 수입분부터 재외공관 발급 인증 서를 통한 통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 브라질 세관 및 인·허가 부처의 경우, 모호한 법령 적용 및 인·허가자 재량에 따라 기존 통관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이에 동일 품목이라도 다수 통관 시 불허가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할 경우 불허 사유에 대한 관계 부처 담당자로부터의명확한 확인이 필요

- 상기 사례 또한 주재국 인허가 규정에 있어 우리 공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관계 부처 담당자로부터 허가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 받은 이후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기업 제품이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
- 상기 관련, 우리 공관은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 점검하는 등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

상하이총영사관

42개월 만의 한·중(옌청) 직항편 복항

1. 사례 개요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2020.2월부터 무기 한 중단되었던 한-중(옌청) 직항편*을 2023.7월 복항 되도록 함.
 - * 코로나19 이전 주 6회(A사 3회, 중국항공 3회) 한-중(옌청) 직항편 운항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2월 중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 옌청 소재 우리 기업들은 옌청 한국상회를 중심으로 옌청시 정부에 직항편 복항을 건의함.(2023.2.21., 옌청 한국상회가 옌청시에 공문 발송)
- **2023.3월** 옌청 한국상회 및 A사는 옌청공항공단과 면담 진행 (2023.3.9.)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5월 주상하이총영사관과 옌청시와의 협의를 통해, 한·중 (옌청) 직항편 복항 관련 A사와 옌청공항공단 회의* 개최 (2023.5.16.)

- * 한중 교류 비활성화에 따른 A사의 운항 부담, 장기 운항 중단 후 복항에 따른 여객기 재편성, 운항 재개 신고 절차, 운항 횟수 결정 등에 대해 논의
- 2023.5월 주상하이총영사는 옌청시 당서기 면담 시 한·중(옌청) 직항편 복항과 관련하여 A사에 대한 옌청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2023.5.17.)
 - *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A사의 직항편 복항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옌청시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3.6월 옌청시의 A사에 대한 한·중(옌청) 복항 관련 지원을 유도하여 A사와 옌청공항공단은 2023.7.12.(수) 복항하기로 합의 (2023.6.2.)
- 2023.7월 A사는 한(인천)-중(옌청) 주 1회(매주 수요일) 직항편 운행을 재개함.(2023.7.12. 운행 시작)

- 관할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최대 숙원사업이었으나, 한중 교류 비활성화 상황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총영사관의 적극 적 활동을 통해 해결함.
-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당 지역 한국상회 와 총영사관이 협력하여 중국 지방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한 사례





* 2023.7.12., 중국 언론보도 사진

〈 직항편 복항 첫날 전경 〉

<mark>상하이</mark>총영사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한·중 여객선 운항 재개

1. 사례 개요

■ 2020.1월 우리 운수 기업 A사는 애초 인천-롄윈강, 평택-롄윈 강 여객 노선을 주 2항차씩 운항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1월부터 여객선 운항 무기한 중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3월 중국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여객 운송 재개 를 적극 추진
- 2023.4월 국제여객선 운송경영 자격증 및 여객선 안전 증서 통과, 장쑤성 교통운송청에서 실시한 항로 및 선박의 적재 자질에 대한 심사 통과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6월 주상하이총영사는 롄윈강시 당서기와의 면담 시 한· 중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 롄윈강시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우리 기업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과 더불어, 여객선 운항 재개 등을 통한 교류 증대가 경제협력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강조
- 2023.10월 장쑤성 교통운송청의 운항 허가가 계속 지연되어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장쑤성 교통운송청에 공한*을 발송하여, 관심과 지원을 요청
 - * 장쑤성은 한국의 최대 대중 투자처로 한·중 여객선 운항 재개는 향후 경제 교류 확대 등에 긍정적인 이바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 정부 차원의 관심을 당부

4. 공관 조치 결과

- 2023.6월-9월 롄윈강항구그룹 및 롄윈강시 교통국은 A사와 세 차례 장쑤성 교통운송청에 함께 보고하는 등 여객선 운항 재개 적극 지원
- 2023.12월 장쑤성 교통운송청의 여객선 운항 재개 허가로, 운항이 중단된 지 4년 만인 '23.12.25.부터 인천-롄윈강 여객선 운항 재개

-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단체 관광 재개('23.8월) 등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중국 지방정부관계자를 직접 접촉(면담, 공한 발송 등)하여 관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애로사항 해소
 - 특히 관할지인 화동지역은 우리 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중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 형성

■ 현재 운항 재개된 인천-롄윈강 여객 노선은 첫날 629명이 승선 하였으며, 이후 평균 3~400여 명씩 승선하며 한·중 교류 확대에 기여 중









〈 여객선 운항 재개 첫날 전경 〉

스웨덴대사관

거주 허가 및 비자 관련 애로 해소 지원

1. 사례 개요

■ 스웨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 허가 정책 엄격화로 스웨덴 진출 우리 기업과 가족들의 거주 허가와 비자 발급에 통상 6개월 이 상이 소요되어 생활과 활동에 큰 애로와 불편이 초래됨.

2. 공관 지원조치

■ 주스웨덴대사관은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웨덴 이 민청과 적극적인 협의 및 교섭을 통해 예외적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대표 등의 거주 허가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조치함.

3. 공관 조치 결과

■ 주스웨덴대사관은 스웨덴 내 176개 외국 공관 중 유일하게 스웨덴 이민청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한국"맞춤형 패스트트랙을 구축, 긴급 지원이 필요한 중요 52건에 대하여 1-2주내 발급토록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수출 증진에도기여함.

- 사업추진에 있어 시간을 다투는 기업활동의 경우 거주 허가 발급 이 프로젝트 수주 및 수출 성과에 관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스웨덴은 이민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커지면서 최근 거주 허가 발급을 포함한 이민청의 외국인 정책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인 거주 허가 발급과 연장도 장기간이 소요됨.
- 우리 대사관은 이러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웨덴 이민청 과 적극적인 협의 및 교섭을 통해 예외적인 핫라인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대표 등의 거주 허가 발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조치함.
- 이러한 지원 조치로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 달성 및 우리 국민 의 거주 이동 자유(미발급 시 거주 이동 제한) 확보와 편익 증진 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음.
- 더욱이 우리를 도와준 스웨덴 이민청 책임자도 한국대사관의 자 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매우 감 동적이고 인상적이라면서 향후에도 적극 협력키로 한 바, 대사관 의 적극적인 활동이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나아가 주재국 과의 관계도 강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됨.

스페인대사관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진출 지원

1. 사례 개요

- 2023.9월 주스페인대사관은 우리 기업 A사 출장단 면담을 통해 A사가 스페인 정부의 '경제회복 및 전환을 위한 전략프로젝트(PERTE)' 중 '전기차·커넥티드카' 분야 지원 대상기업의 하나로 선정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유사한 시기 신청한 다른 기업들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사는스페인 정부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임을 인지함.
- 2023.10월 A사는 한국 복귀 후 스페인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노동허가서 발급, 비자 문제 등에 대한 대사관의 자문을 구해옴.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월 주스페인대사관은 A사의 면담 요청을 받고 A사가 당지 진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출 대상지역의 현지 경제인연합회 회장, 스페인 동종업계 그룹 회장 연락처 등을 A사에 사전에 전달함.

A사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경제회복 및 전환을 위한 전략프로젝트(PERTE)' 전기차·커넥티드카 담당 특별위원에게 최근 복수의 한국기업들이 스페인 전기차 배터리 시장 투자 진출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한국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함. 이와 별도로 당지 KOTRA 무역관과 협의, 무역관이 별도 채널을 통해 A사가 1차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배경을 파악하고 이를 A사에 전달토록 함.

■ 2023.10월 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의 행정적인 문의사항과 관련, A사가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ICEX, 우리의 KOTRA에 상응) 서울사무소를 소개하는 한편, ICEX 본부 외국인직접투자 담당 부국장에게도 연락하여 A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

3. 공관 조치 결과

■ 2023.10월 A사로부터 PERTE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따라 130억원 규모의 스페인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또한 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과 화상회의를 갖고 A사가 필요로 하는 행정적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유용한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함.

아르빌분관

쿠르드 지역 E-Visa(도착비자) 발급 재개 지원

1. 사례 개요

- 2023.10월 A사, 쿠르드 E-VISA 포탈에서 한국명이 삭제되고 아르빌공항 이민국의 도착비자 발급이 지연됨을 설명하면서 우리 분관 지원을 요청
- 2023.11.5. 새벽 한편, A사 직원 B씨는 우리 분관 당직폰으로 아르빌공항 내 이민국에서 도착비자 발급을 거부해 공항에 체류 중임을 설명하고 우리 분관의 지원을 요청함.
- 2023.11.5. 오전 우리 공관은 아르빌측 총책임자 C와 접촉하여 상기 두 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으며, 총책임자는 우리 공관 설명에 대해 이해하였다고 하면서 해소
 - ※ 상기 10월 사안의 경우, 우리 공관은 B씨가 즉시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쿠르드 비자 담당 국장 C가 해외 출장으로 복귀하는 가장 빠른 일자인 11.5에 직접 유선 면담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10월 이후 우리 기업들은 우리 분관의 지침에 따라 불요 불급한 출장연기 등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함.

■ 2023.11.5. 새벽 주아르빌분관 담당 영사는 아르빌공항을 즉시 방문하여 B씨 및 이민국 관계자와 면담

또한 비자 담당 총책임자 C와 통화하여, 쿠르드 총책임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요청 ⇒ 이에 대해 담당관 C는 본인 출근 즉시 동 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

또한 담당 영사는, 비자 담당 총책임자 면담 시 최근 쿠르드 E-Visa 포탈에서 한국명이 삭제되고, 아르빌공항 입국시 우리 국민의 도착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요청

■ 2023.11.5. 오전 동 책임자 C는 우리 분관에서 보낸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서 관련 공한에 대해 쿠르드 정부가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상기와 같이 입국 제한이 있었다고 다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KRG 대외관계부 등과 연락해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언급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15. 쿠르드 내무부는 E-Visa 시스템에 한국명을 복구하고, 아르빌 공항에서 한국민의 도착비자 발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치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쿠르드 지역은 업무 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투명하게 않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기업 활동 시 이를 감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재국 실무 담당자의 재량권이 적고 대부분의 결정을 최고 위직에서 처리하는 Top down 방식의 문화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공관은 따라서 평시 각 분야 실무담당자 및 고위 관계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상기 사례에서처럼 우리 공관은 주재국 담당자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 나갈 예정임.

아르헨티나대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부보 한도 증가 지원

1. 사례 개요

- B사는 현지 협력사에 생산 자재를 수출하고, K-Sure(한국무역보 험공사)는 현지 협력사가 B사에 지불하는 수입대금에 대한 보험 부보를 제공
- 아르헨티나 내수시장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생산자재수출 규모 가 2021-2023년간 크게 확대되었으나, 보험부보 한도는 오히려 감소하여 2023년 기준 B사의 對 협력사 수출 규모의 절반 이하 를 차지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 B사는 K-Sure와 보험부보 한도 증가 등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현지 협력사는 자체적인 신용보증 확보를 통해 수입액과 보증액 간 불일치 문제를 일단 해결

- 2023.11월 공관장, 지방소재 현지 협력사 방문 계기 동 애로사 항을 전달받고, 산업통상자원부와 K-Sure에 애로사항 보고
- 2023.12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 경축 대통령특사 방문 계기 지상사 간담회에서 경축 특사(국무조정실장)에게 B사 보험부보 문 제 제기

4. 공관 조치 결과

- 2024.1월 K-Sure, 단기수출보험 추가 지원 검토 가능 통보
- 2024.3월 협력사 K-Sure간 한도증액 절차 논의 시작 및 1 차 증액 검토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애로사항은 B사의 현지 파트너사 방문 계기 인지한 사안으로 서, 우리 기업은 물론 현지 파트너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기업 현장 방문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아르헨티나대사관

수입통관 애로 지원

1. 사례 개요

- 2023.7-8월 A사, 아르헨티나 당국으로부터 필수 자재 수입허가 획득(7월), 초도 물량 반입(8월)
- 2023.9월 아르헨티나 관세총국, 2차 물량 통관 대기 중 동 자 재의 사용 허가를 위해서는 품질검사가 필요하며, 이미 반입된 물량도 최종 허가 전까지 사용 금지한다고 통보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아르헨티나 관세총국장을 면 담하여 A사 생산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최종 사용 허가를 위한 품질검사 결과의 조속한 발부를 강력 요청
- 2023.10월 주재국 중앙은행 총재를 만찬에 초청하여 동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3. 공관 조치 결과

■ 2023.10월 아르헨티나 관세총국, A사 필수자재 잠정 통관 및 사용 허가 발부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아르헨티나의 수입허가에는 세관·검역 당국은 물론 경제부와 중 앙은행 등 다양한 기관들이 다층적으로 관여하는바, 관세총국과 중앙은행 등 유관 기관들의 최고위 인사를 동시에 접촉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아르헨티나대사관

해외 투자기업 인정 지원

1. 사례 개요

- 2021.4월 주재국은 일정 액수(5억 불) 이상 투자한 해외투자기 업에 해외송금 등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제정됨.
- 2023 A사, 누적 투자액이 5억 불을 초과하였으나 '투자'의 인 정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 관련 주재국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A기업의 수혜기업 인정 지연
 - * 현지 자본재 구입액의 포함 여부 등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7월 우리 공관은 중앙은행 총재를 접촉하여 A사 상황을 상세 설명하는 한편, A사의 투자가 한국은 물론 아르헨티나 경제에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

3.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A사가 주재국 특혜 제도상 투자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법령상 혜택을 받게 됨을 발표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해외 투자기업 혜택을 규정한 법령의 해석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 와 중앙은행 간 이견이 있었던 사례로서, 교섭 과정에서 우리 대 사관이 기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한-아르헨티나 간 경제협력,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 전환 등에 있어 동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해 낸 것으로 관찰

알제리대사관

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준공 협상 지원

1. 사례 개요

■ 2023.7월 알제리에서 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 중인 우리 기업 6개 사는 공기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 발주처의 비협조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합동 호소문, 7.18일 작성), 이에 주알제리대사관에서는 고위급 면담, 법률 지원, 최고경 영진 회의 지원 등 공관 차원의 조치를 시행하여,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전준공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성과 달성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7월 합동 호소문 작성, 8월 주알제리대사관에 전달
- 2023.2월 A사 발주처와 최고경영진 회의를 개최, 사전준공확인 서 발급 절차 합의, 3월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 2023.10월 B사 발주처와 최고경영진회의를 개최, 사전준공확인 서 발급 절차 합의, 11월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 2023.3월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 하여 지난 2월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절차 합의 관련 사의를 표하고,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준공 협상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 2023.3월 수주지원협의회를 개최, A사의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협상 과정 관련 기업들에 공유 및 향후 전략 등 논의
- 2023.8월 복합화력발전소 진출기업 애로사항 호소문 제출 계기 면담 진행,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 주요 인사 면담 시 지원 요청, 기업 공동명의 또는 개별기업 공한 발송 등으로 애로사항 요청 축적 필요 등 논의
- 2023.11월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현장 2곳 방문,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협상 중인 현장 1곳과 공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1곳을 방문, 관할 주지사에게 노동관계 분쟁 등 관련 업무 처리사항 발생 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 2023.12월 에너지광물부 장관 면담, 지난 11월 B사의 사전준 공확인서 발급에 사의를 표하고,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조 속한 준공과 건설을 위한 적극적 관심과 지지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3.3월 A사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 **2023.11월** B사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 2023,12월 A사 최종 준공 확인 관련 절차 합의
- 2024.1월 B사 추가 2곳 사전준공확인서 발급 절차 합의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알제리대사-에너지광물부 장관 면담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고위 간부 방문 등 고위급 면담 및 방문 계기에 고위경영진회의가 성사되고, 보류 중인 사안이 해결되는 등 변화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8개 복합화력발전소 중 4곳이 준공 협상이 완료(2곳은 사 전준공확인서 발급, 2곳은 절차 합의)되었고, 향후 진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을 지원할 예정

에티오피아대사관

주재국의 부당한 과세로 인한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

1. 사례 개요

■ 2023.1월 에티오피아 소재 EDCF 사업으로 당지 도로 건설 시 공사로 참여 중인 우리 기업 A사는 주재국 세무 당국의 부당과 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로 대사관의 지원을 요청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법인세(1차 36억 원, 2차 39억 원)의 경우 A사가 사업 적자로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 과다하게 매출을 증가시키고 비용은 감 소시킨바 연방고등법원 소송 진행
- 부가세의 경우 환차익에 대한 매출 부가세를 부과함(20억 원). 환차익은 국제기준상 부가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 대상으로 인 정하더라도 납부 책임은 발주처에 있는바 1차 부가세는 소청심 사위, 2차 부가세는 세무 당국에 재검토 요청

- 2023.2월 △세금 부과 현황 설명 △세무 당국의 부당과세 지적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 방지협정(17.10월 발효) 내용으로 주 재국 국세부앞 공한 발송 및 당지 수출입은행 사무소와 협력하여 세무 당국, 재무부 및 발주처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
- 2023.2월 이후 A사 및 당지 수출입은행 사무소와 진행 상황 지속 확인

4. 공관 조치 결과

- 2023.6월 부가세의 부과 해소, A사가 아닌 발주처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2023.8월 △1차 과다계상 법인세 30% 법인세 차감 조치. 다만, 감액된 금액 또한 과다 계상된 금액으로 연방세무분쟁위원회소송 진행중 △2차 과다 계상 법인세는 현재 연방 고등법원 소송 진행 중이나, 법원 측 사유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바 지속확인하고 있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재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외국기업 대상 과세 정책 등을 우리 기업들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공관과 협조할 필요가 있음.

우한총영사관

우리 기업 외환 반입에 따른 중국 지방정부의 벌금 부과 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우한 진출 우리 기업은 자금난 등 경영악화로 2022년부터 법정 관리하에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던 중,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한 국 본사로부터 3천만 위안을 송금받아 A은행 우한지점에 상환한 바, 지방정부 외환국은 동 외환 송금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점, 거래액이 동사의 자본금을 초과한 점을 이유로 불법 거래라 지적하며, 벌금 부과 가능성을 통보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 기업은 동 외환거래가 관련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지방정부 외환 당 국측에 설명하는 한편, 주우한총영사관에 벌금 면제 혹은 벌금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

- 주우한총영사관은 지방정부 부성장(23.2.23.), 상무청장(23.3.9.), 외환국 부국장(23.7.11.) 면담 및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
 - 관할부서 면담(외환국) 시에는 우리 기업 관계자도 동석하여 자 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토록 조치
- 총영사관은 경제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의견을 우리 기업에 전달, 우리기업이 외환 당국과의 협의 시 참고토록 조치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15. 지방정부 외환국은 관계부서간 내부 회의(우리 기업 참석)를 갖고, 우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우한총영사관에 통보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당관은 사태 초기부터 성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접촉, 과도한 벌금 부과 시 해당 한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여타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강조한바, 지방정부 측도 이에 공감하면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임.
- 동 사안은 우리 기업이 외환거래로 인해 거액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회사 스스로의 자구 노력과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벌금 부과 없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로 평가

우한총영사관

중국 현지 은행과 우리 기업 간 대출금 상환 관련 법적 분쟁 미연 방지

1. 사례 개요

■ 리조트 사업을 하던 우리 기업 A사는 코로나19 사태 등 여파로 몇 년간 영업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은행이 우리 기업 대표를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함에 따라 법원 재판절차(23.12월 초 개시)가 진행될 상황에 놓임.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 기업 A사는 대출금 상환 및 사업 정상화 의지를 보이면서 지방정부와 은행 측을 접촉하여 재판절차 진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우한총영사관의 지원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우한총영사는 A사의 사업체가 소재한 마청시에 긴급 출장 (23.11.22.), 마청시 관계 인사(부시장 등), A사 대표가 함께하는 대책 회의를 하고,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한 편, 마청시 상급기관인 황강시 부시장을 면담하여 황강시 차원의 지원을 요청

■ 성정부 및 황강시, 마청시 정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황강시, 마청시 고위인사 면담에 따른 진전 상황을 A사와 공유하는 등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27. 마청시 정부는 법원 중재하에 A사 대표와 중국 은행 간 대출 상환 시기 및 방식 등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애 초 예정되었던 재판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총영사관 에 통보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안은 코로나19 등 사유로 우리 기업의 사업체 운영이 오랜 기간 중단되어 오면서 사업체 운영 관련 우리 기업과 지방정부/ 은행 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사안으로 특히 대출 상환 문제로 법적 분쟁이 예정되었던바,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해결 노 력으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총영사관의 지원에 따라 황강시와 마청시 고위인사들의 우리 기업 사업체 운영에 대해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향후 동 사업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이집트대사관

부당 관세 부과 철폐 지원

1. 사례 개요

■ 면도기 생산기업인 A사는 이집트에 생산공장을 신규 투자 추진 중으로, 2023.8월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 통관 과정에서 현지 세관이 이를 면도기 부품류가 아닌 완제품으로 판정하여 45%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2023.9월 현지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담당관이 관세 20%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현지 세관은 최초 판정대로 관세 45% 부과를 고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기업은 항소를 제기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이집트대사관은 코트라 카이로무역관과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2023.10월 주재국 관세청, 재무부, 외교부, 투자청 등에해당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

4. 공관 조치 결과

- 주재국 관세청은 2023.10월 항소 절차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최초 품목 판정을 번복하고 2%라는 저율의 관세부과를 결정
- 우리 기업은 애초 예상했던 5~10%보다 더 낮은 관세로 해당 부 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어 현지 생산경쟁력 강화에 기여

이집트대사관

투자기업의 통신망 복구 지원

1. 사례 개요

■ 이집트에 물류센터를 구축한 우리 기업 D사는 센터 운영을 위해 통신망이 매우 중요하나, 2023.3월 통신시스템 손상으로 네트워 크가 불통되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2. 기업의 대응조치

■ D사는 2023.3월 현지 통신업체를 통해 손상된 통신시스템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당국의 관련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업체의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이집트대사관은 2023.3월 이집트의 통신 관련 정부 기관 등에 우리 기업의 상황을 전달하고 조속한 통신시스템 교체 허가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스템 복구를 10일 내 완료

■ 이집트 관계당국은 관련 허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현지 통신 업체에 신속한 협조를 요청하여 애초 2개월이 예상되던 통신시

95

이집트대사관

현지 프로젝트 국내 인력 파견 지원

1. 사례 개요

■ 이집트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 B, C사는 사업 일 정에 따라 국내 인력을 이집트로 파견하여야 하나 당국의 인력 보안허가 발급이 지연되어 현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음.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 기업 B, C사는 2023.7~8월 관계 당국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보안허가를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촉구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8월 주이집트대사는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장을 면담하여 우리 기업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 보안허가 발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3.9월 이집트 관계 당국이 국내 파견 인력에 대한 보안 인가 를 발급하여 대기 중이던 인력이 차질 없이 사업에 참여

인도네시아대사관

수입 규제로 인한 쿼터 승인 지연 해소

1. 사례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규제 범위를 쌀, 설탕 등 농축산물 외에 다른 품목으로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30여 개 품목에 대해 상품수지시스템에 등록 하여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 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에 어려움 발생
-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 요청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수입 허가를 받아 우리 기업의 어려움 해소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1월 철강업체 A사는 인도네시아 내 생산을 위한 원자재수입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허가취득 지연
- 특히, 해당 업체는 인도네시아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으로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연락도 되지 않아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

- 2023.4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코트라와 함께 인도네시아 산 업부, 경제조정부 등에 해당 기업의 사정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 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
- 인도네시아 산업부 담당과인 철강과와 접촉, 동 기업의 수입 승 인 허가를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3.4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가 끝나자마자 수입 허가를 취득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최근 인도네시아는 자국 제조업 육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쿼터 부여, 인증 절차 강화 등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접촉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외국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
-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지 우리 기업 및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기요

인도네시아대사관

수입통관 애로 해결 지원 주요 사례

1. 사례 개요(3건)

- 세관통관시스템 고장으로 보세 지역간 물품 반·출입 불가(2023.2월)
- 주재국 진출 우리 기업에 납품되는 부품의 수입통관이 장기간 지연(2023.4월)
 - 세관의 영업정지 조치로 인해 관련 부품이 반입된 물류센터의 재고목록에서 18개 품목이 누락 → 수입통관 지연 (USD 35,000\$ 상당)
- 현지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건설장비의 통관 불허(2023.11월)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재국 관세청에 세관의 수작업 처리를 통해 물품 반·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세관통관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또한 요청
- 물류센터 재고목록에서 누락된 18개 품목을 사후적으로 추가하 여 통관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세관 및 상급 기관인 관세청에 지 속 요청

■ 관세청 및 세관을 통해 통관 불허 사유 파악 및 해결 방안 안내

3. 공관 조치 결과

- 2023.2월 물품 반·출입 가능토록 주재국 관세청으로부터 긴급 물품의 경우 서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회신받아 관련 협의회 에 제공
 - 관세청 세관통관시스템의 완전 복구를 확인 후 우리 기업에 전파
- 2023.5월 주재국 관세청이 세관에 재고목록 사후 추가를 허용하여, 통관보류 되었던 18개 품목의 수입통관 및 출고 완료
- 2023.11월 수입신고시스템상 입력 오류 해결로 수입신고 및 출고 완료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례는 주재국 관세청 세관통관시스템 복구 지연에 따른 수· 출입 통관 애로사항을 인도네시아 관세청과 평소 구축된 우호적 인 협력 채널을 활용 신속하게 수입통관 애로를 해소한 사례

인도네시아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국계 보험사 협회 설립을 위한 대사관 추천서 신속 발급

1. 사례 개요

■ 2023.5월 이복현 한국 금융감독원장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한국 보험업계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인도네시아 정부 대상 B2G(Business to Government) 공동 대응을 위한 재인도네시아 한국보험기업협회 설립을 제안

2. 기업의 대응조치

■ 인도네시아 내 한국계 보험회사 4개사가 상호 간 건전한 발전과 상생을 목적으로 한국계 보험사 협회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인도 네시아 당국은 협회 등록을 위해서 한국 측의 공식 추천서를 요 구하면서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추천서를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국계 보험회사 간의 상생과 더불어 한국계 보험사의 이익 총량 확대를 위한 대 인도네시아정 부 공식창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대사관 명의 추천서를 발급 ■ 2023.11월 재인도네시아한국보험사협회 설립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 설립 경과 청취 및 설립 후 주요 활동 현안에 대해 논의. 특히,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동 협회 설립을 통해 ① 동종업계 상호 간 경쟁과 공존이라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면서도 이익의 총 량을 확대하고자 협력, ② 대인도네시아정부와의 논의에 있어, 더 큰 보편성을 가지고 업계 전체의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 ③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공유는 물론 포용하는 공동체로서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 전달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0.10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명의 추천서 발급과 함께 재인도네시아한국보험사협회(APAKI :Asosiasi Perusahaan Asuransi Korea di Indonesia) 설립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승인, 2023.11.27일 설립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재인도네시아 한국계 보험사 간 협력과 주재국 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위한 협회 설립에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단시 간 내에 협회를 설립한 사례

- 협회명 : Asosiasi Perusahaan Asuransi Korea di Indonesia (APAKI : 재인도네시아한국보험사협회)
 - * 영문명: Association of Korean Insurance Company in Indonesia
- 목적 :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 관련된 회원 간 네트워크와 상호교류 강화, B2G(Business to Government) 공동대응, 인도네시아 내 한국브랜드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적 프로그램 및 활동 전개
- 설립근거 : 인도네시아 국내규정 MoLHR No.3 of 2016 「사회단체(Social Organization)」
- 설립형태 : Association, Non-Profit Legal Entity
- 참여사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생·손보 5개 사를 정회원으로 하며, 사무소 운영중인 2개 사는 준회원으로 참여

인도대사관

A사에 대한 은행지급보증(Bank Guarantee) 환급 지원

1. 사례 개요

- 2020.10월 인도 관세청(CBIC) 에서 개정시행규칙(CAROTAR 20*)을 시행, 원산지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원산지 검증 건에 대하여 특혜관세와 기본관세 차액만큼 은행 현금 담보(Bank Guarantee)를 제출해야 통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 *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2020
- A사는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회사로, 원재료 대부분을 베트남 현지공장에서 수입하고 있고, '20.10월~'23.1월까지 수입 5,300여 건의 원재료를 인도-아세안 FTA를 적용하여 수입통 관중 원산지 검증을 위한 약 1,600억원 상당의 은행보증금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1.3월 주인도대사관 방문, 관세관에게 애로사항 민원 및 해결 요청

- 2022.1-23.8월 인도 관세청(CBIC*)을 방문, 조속한 시일내에 은행담보의 해제를 요청
 - * Central Board Indirect tax & Customs,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
 - CBIC는 베트남의 원산지 검증결과 미회신으로 담보해제가 불가 능하다고 답변
- 2023.1월 주인도대사관 주관 수출입통관협의회에 참석하는 협회, 기업들에게 내용 공유 및 지원 요청

- 2021.3월 동 물품의 통관을 관할하고 있는 델리세관을 방문, 세관장에게 동 애로사항 전달 및 신속 해결 요청
- 2021.8월 신임 관세관 부임시 CBIC 위원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해결 요청
 - 이후 델리세관 수출국장과 수입국장을 만나 관련 문제 해결 촉구
- 2022.11월 관세관 현지 통관 애로 지원팀 방문 시 해결방안 논의
 - 베트남 세관에서는 원산지 검증을 종료하고 증빙서류를 주베트 남 인도대사관으로 발송하였지만, 동 대사관에서 원산지검증결 과 서류 미발송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검증 서류가 정상적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조치

4. 공관 조치 결과

- 2023.8월 주베트남 인도대사관으로부터 원산지검증 결과 서류 를 정상적으로 송부받아 인도 델리세관으로부터 약 1,600억원의 은행보증금을 해제
 - ※ 경제적 효과 약 148억원으로 추정 (은행보증금 1,600억원에 대한 이자부 담액)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재국 측 제도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대 사관과 해당 기업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주 재국 측과 꾸준히 협력을 모색하여 해결한 사례로 의의가 있음.

인도대사관

법인세 선납 환급금 업무처리 지연 해결

1. 사례 개요

■ 2023.1월 우리 기업 A사가 주재국 국세청과 세금 관련 소송에 서 승리하여 소송을 위해 납부한 17/18, 18/19 회계연도 법인 세 선납 부분 약 11억을 환급받기 위해 국세청에 신청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1월-5월 주재국 국세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국세 청 담당자와 여러 번 면담했으나 환급이 계속 지연되어 재정 어 려움을 겪게 됨.
- 2023.5월 주인도대사관 국세관에게 애로사항 민원 및 해결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5월 A사로부터 민원 접수 후 상황을 파악하고 주재국 국 세청 내 담당자에게 메일로 애로사항 전달
- 2023.6월 주재국 국세청 내 담당 부서 국장 면담

4. 공관 조치 결과

■ 2023.7월 주재국 국세청에서 A사에 환급 조치 완료, 주인도대 사관 국세관이 향후 회계연도 환급에 대해서도 당부(전체 선납 법인세 약 50억 원)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대사관 담당 직원의 적극적인 주재국 국세청 방문 및 협의 시도, 주재국 국세청 고위직과의 사전 네트워킹 등이 우리 기업 애로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

자메이카대사관

우리 기업인 고용 허가 발급 애로 해소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2011.4월 자메이카 전력공사(JPS, Jamaica Public Services) 지분 40%를 인수, 경영에 참여 중이며, JPS는 자메이카 총발전 설비용량(903MW)의 52%와 송배전망 100%를 소유함.
- 2023.2월 A사는 신규 파견자(2인) 고용 허가 발급 신청(각각 주재국에 2022.12월 및 2023.1월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정식 고용 허가(Work Permit)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발급 가부나 여타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설명도 자메이카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지급으로 주자메이카대사관의 조력을 요청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2월 A사와 면담 결과, JPS 임원단과 운영지원팀을 통해 동 회사가 자메이카 외교당국 및 이민청에 정식 고용 허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소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완료함.

- 면담 종료 직후, 주자메이카대사관은 주재국 외교당국 및 이민청 등에 접촉하여 관련 사안을 문의했으며, 관련 부처에 원활한 절차 진행을 요청함.
 - 고용 허가 취득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고 용허가 신청자들은 A기업 재직자들로서 신원이 확실하고, △주 재국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인력임을 강조

3. 공관 조치 결과

- 2023.2월 자메이카 이민청으로부터 현재 A사의 신규 파견자의 고용 허가 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이라며, 이민청 담당자는 신청자부터 차례대로 안내하겠다고 함.
- 2023.2월 A사는 주자메이카대사관에 유선으로 연락, 공식 고용 허가를 발급받았다면서 대사관의 적극적인 조력 및 애로사항 해 결에 사의를 표함.

- 고용 허가 심사 등 주권국의 고유 권한에 관한 협조 요청은 신 중히 할 필요가 있으나, 각국의 이익 및 관심 사항을 파악하여 전략적 접근 시 긍정적 반응을 도출할 수 있음.
 - 동 사안에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한 고용 허가 발급을 일 방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주재국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의 원활 한 진행과 연관시켜 협조를 요청한 것이 주효함.

첸나이총영사관

현지 진출기업 세금 분쟁 사건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공기업 A사는 인도 케랄라 주정부의 전력 효율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인도 조세당국은 2012-2017년 회계연도 감사를 통해 2019.6월 3,400만 루피(약 4.8억 원)의 추징을 통보한 후, A사의 세금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 주정부로부터 받을 A사의 대가 지급액에서 강제징수 시행
 - ※ A사는 SW 구축 분야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인도 조세법에 따라 서비스세(Service Tax)를 납부하여 왔으나, 인도 조세당국은 이에 대해 부 가가치세(VAT)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추징금 부과

- 2019.7월 A사는 전문 회계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세당국에 추징금 부과 및 강제 징수의 부당함을 항소
- 2022.6월 인도 조세당국은 동건을 재검토 후 A사에 대한 추징 금 3,400만 루피 환급 결정을 통보

- 2023.4월 환급 결정이 통보되었음에도 실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A사는 조세당국에 조속한 환급을 요청
 - 이는 환급 요청뿐만 아니라 차기 회계감사에서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4월 주첸나이총영사관은 A사와 동 조세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
 - 구체 대응에 앞서 주첸나이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를 통해 동 세 금 분쟁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 2023.5월 케랄라 조세 당국에 강제 징수금의 조속한 환급 및 동일사건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
- 2023.11월 한-인도 카라반 행사의 일환으로 케랄라 지역 방문계기 A사와 면담하여 동건에 대한 진전 사항 파악

4. 공관 조치 결과

■ 케랄라 조세 당국에만 유사한 사건 2,000여 건이 계류 중인바, 환급이 지연되어 현재 A사는 조세당국의 환급을 기다리는 중이 며, 우려하던 바와 달리 추가로 차기 회계연도 세금에 대한 징수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

- 인도 정부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과거 세금 납부 건을 소급 적용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자의적인 무리한 규정 적용으로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유사한 재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세금 징수에는 개별기업과 공관의 협조를 통해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인도에서 법률, 조세 분쟁은 주마다 다른 법령과 복잡한 관료 제 도로 인해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고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바, 공관 차원의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이 중요

칠레대사관

기업의 공사 기간 연장 요청 관련 정부 승인 지원

1. 사례 개요

- 2023.10월 우리 기업 A사는 칠레 공공사업부에 현재 칠레 내시행 중인 건설 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 클레임을 제출함.
 - 동 사업은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청,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사 지연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9년 말부터 2023.1월까지 이미 여러 차례 변경
- 2022.10월 A사의 요청에 따라 주칠레대사관은 연장 요청 승인을 위해 지원을 개시함.

- 2023.1월 A사는 건설 사업 공사 기간을 연장(2022.11월 제출) 한 데 이어, 2023.10월 칠레 공공사업부에 추가 연장을 요청하 는 서류를 접수함.
- 2023.10월 A사 현장 소장은 주칠레대사 면담을 통해 공기 연장을 위해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월 주칠레대사는 칠레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하여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칠레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 청함.
- 2023.11월 주칠레대사는 건설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감독관을 면담하고, 칠레 공공사업부 지방청 방문을 통해 건설 사업 총책임자를 면담하여 그간 우리 기업이 겪은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제고하고 긍정적 검토를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4.1월 A사 현장 소장은 공기 연장 요청에 대한 긍정 통보를 받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발주처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서도 여러 차례 사업 변경을 요청했던 상황에서 A사 현장 소장과 함께 공관장이 직접 나서서 해당 부 처의 장뿐만 아니라 현장 총책임자, 감독관에 이르기까지 공감을 제고하는 등 대사관의 측면 지원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칠레대사관

기업의 지분 매각 관련 원천세 환급 지원

1. 사례 개요

- 2021.3월 우리 기업 A사는 지분 매매계약에 따라 원천세 조기 환급(전체 US \$30.5백만)을 위해 칠레 국세청에 사전 검토를 요청함.
- 2022.4월 A사 현지 세무 자문사가 칠레 국세청 담당자로부터 원천징수 신고(납부) 후 환급 절차가 가능하다는 구두 회신을 받았고, A사는 1차 매각 대금 관련 원천징수를 납부함.
- 2022.10월 A사의 요청에 따라 주칠레대사관은 환급금 조속 수 령을 위해 지원을 개시함.

- 2021.4월-2022.4월 현지 세무 자문사 선임, 칠레 국세청에 관련 서류 제출(추가 요청자료 제출 포함) 및 질의에 대응하다가, 2022.4월 1차 매각 대금 관련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함.
- 2022.10월 A사 대표는 주칠레대사 면담 시, 원천세의 조속한 환급을 위해 주칠레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2.10월 주칠레대사관은 칠레 국세청 앞으로 협조 요청 공 문을 발송한바, 2022.12월 칠레 국세청으로부터 주칠레대사관 앞으로 협조를 약속하는 공문이 접수됨.
- 2022.12월 주칠레대사관, A사 및 현지 세무 자문사는 칠레 국 세청장을 면담하고 조속하고 긍정적인 해결을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8월 A사는 칠레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통보문 및 1차 원천징수 환급금(약 US \$14.3백만)을 수령함.
- 2024.1월 A사는 2차 원천징수 환급금(약 US \$8.3백만)을 수령함.

- 주재국 공공기관의 처리 기간이 길고 연장이 잦으므로 환급금 수 령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사관의 공식적 측면 지 원이 효과적이었던 경우로 볼 수 있음.
 - 1년에 걸쳐 사전 검토된 건으로 조기 검토 완료가 기대되었으나, 칠레 국세청 결정이 지연되었으며, 원천징수 납부(매각 대금 수령 기준, 차년도 4월) 후 환급 완료까지 5-6개월 소요를 예상했으나 최종적으로 16개월 소요
- 우리 대사관은 기업 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대사관과 협의할 것을 지속해서 안내 중임.

카타르대사관

카타르 고속도로 건설 사업 현안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카타르 정부가 발주한 2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수주(2012년 12.2억 불, 2017년 5.6억 불), 2018년과 2020년에 성공적으로 완공·개통을 하였으나 사업 인수 및 비용 정산이 지연되어 추가 비용 발생 등 어려움에 직면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1년부터 발주처(정부)와 사업 인수 및 비용 정산을 협의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주카타르대사관 및 국토교통부에 상기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월 주카타르대사, 주재국 발주처인 공공사업청장 면담을 통해 A사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 요청
- 2023.1월 주카타르대사, 주재국 자치행정부 장관(공공사업청 상 위부처) 면담을 통해 A사와 공공사업청간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 요청

- 2023.1월 국토교통부 장관 카타르 방문 계기, 주재국 자치행정 부 장관,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지원
- 2023.4월 주카타르대사, 주재국 교통부 장관(공공사업청 유관부처) 면담을 통해 A사와 공공사업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 요청
- 2023.9월 주카타르대사, 주재국 공공사업청장 면담을 통해 현 안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 재요청
- 2023.9월 주재국 공공사업청장 한국 방문 지원(국토교통부장관 면담 등)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A사와 공공사업청간 사업 인수 및 비용 정산 합의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지속적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특히, 발주처뿐만 아니라 상위부처 및 유관부처 고위급 대상 전방위적 지원 요청이 효과를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

쿠웨이트대사관

쿠웨이트 국제공항 터미널4(T4) 운영 연장계약 체결 지원

1. 사례 개요

-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쿠웨이트 국제공항 터미널4(T4)를 운영해 왔으며, `23.8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주재국 요청 및 양국 간 외교관계, 향후 추가 수주(T2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계약 체결 없이 T4를 운영함.
- 2023.7월 인천공항공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주쿠웨이트대사관에 조속한 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함.

- 2023.1월→ 인천공항공사는 주재국 민간항공청에 2023.8월 계약이 만료되므로 계약연장 또는 계약종료 후 운영 이관을 준비해줄 것을 서면 및 면담 등을 통해 지속 요청
- 2023.9월 인천공항공사 본사 차원(9.5. 해외사업처장, 9.24. 미 래사업 본부장)에서 주재국 민간항공청을 방문하여 조속한 연장계약 체결을 촉구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7월 주쿠웨이트대사관은 현안 점검 회의(7.11.)를 개최하여 인천공항공사 현안 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으며, 인천공항공사 관련 현안에 대한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주쿠웨이트대사 명의 서한을 주재국 외교부에 송부(7.16.)
 - 이후, 주쿠웨이트대사가 계약 연장 관련 심의 권한을 지닌 재무부 장관(대행)을 면담(7.25.)하고 조속한 업무처리 등 협조를 요청함.
- 2023.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 진행된 우리 총리와 주 재국 왕세제 면담(9.23.) 시 동 사항을 안건으로 반영*하고, 조속 한 계약 체결을 위한 왕세제 및 쿠웨이트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
 - * 면담 전 주재국 외교부에 동건을 포함한 우리 기업 현안 사항을 정리하여 전달
- 2023.9월 주쿠웨이트대사가 주재국 공공사업부 장관을 면담 (9.24.)하고 T4 운영 계약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2023.10월 주쿠웨이트대사가 주재국 재무부 장관을 면담 (10.4.)하고 T4 운영 계약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항공청을 담당하는 재무부 담당자(Financial Controller)의 조속 한 업무처리를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주재국 민간항공청은 T4 운영 계약연장 확정 사실을 통보(12.5.)해 왔으며, 인천공항공사 사장 방문 계기 연장계약* 체결(12.12.)
 - * 1년 계약 금액은 1,010만 KD로 기존 계약 금액 770만 KD 대비 30% 정도 증액됨.

- 수시로 개최한 기업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안 사항 파악 이후 곧바로 지원에 착수하여 조속한 현안 해결을 도모할 수 있었음.
- 특히, 동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공공사업부뿐만 아니라 왕세제, 외교부, 재무부 등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 조속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사료됨.

타지키스탄대사관

태양광 부품 소재 생산 우리 기업투자 진출 지원

1. 사례 개요

- 2023.2월 태양광 부품 소재 투자 사업(20억 불 규모)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 A사는 현지 민간 파트너와의 문제 발생으로 타지키스탄 투자 진출에 차질이 발생, 우리 대사관에 對타직 투자 진출을 위한 자문 요청
- 2023.11월 우리 대사관의 자문과 조력을 바탕으로 투자 사업을 재정비하던 A사는 주재국 정부가 투자협약서 최종 합의를 지연함에 따라 사업 중단 위기에 재봉착, 우리 대사관측에 재차 애로 해소 요청

- 2023.1월 2021.9월부터 A사는 주재국 내 유력 인사의 개인 인 맥을 통한 투자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타직측 민간 사업파트너의 경험 부족 및 사업 전반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추가 진전이 없자 A사는 현지 민간 파트너에게 사업 백지화 통보
- 2023.2월 A사 대표는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기업 인 간담회 계기 지난 1년 이상 추진해 온 동 사업 경과 및 시행 착오 등을 설명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우리 대사관측 자문 요청

- 2023.5월 우리 대사관의 조언과 지원을 바탕으로 A사는 B2B가 아닌 B2G 형태로 사업을 재추진키로 하고, 타직 대통령으로부터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은 후 타직 정부와 투자협약안 마련을 위한 세부 작업 개시
- 2023.11월 주재국 정부와 일부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그리며 투자협약서 최종안 합의가 지속 지연됨에 따라 A사는 대사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조력 요청
- 2024.1월 A사와 주재국 정부간 투자협약서 체결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2월 우리 대사관은 A사측 자문 요청에 대해 태양광 부품 소재 사업 규모 및 성격 등을 감안 시 B2G 형태로 사업 추진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
- 2023.3월 주타직대사는 주재국 외교장관을 접촉, 우리 기업의 對타직 투자 진출 의지, 그간의 경과 및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타직 정부측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재국 외교장관은 주재국 정 부가 직접 동 사업을 살펴보겠다고 협조
- 2023.4월 주재국 외교장관은 우리 기업 투자사업 내용을 타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 2023.5월 우리 대통령 특사와 타직 대통령 면담 시 동 우리 기업의 타직 진출 애로 사항을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주재국 대통령은 면담 자리에서 동 사업 추진을 승인함과 동시에 산업신 기술부를 담당 부서로 지정

- 2023.6월 우리 대사관은 주재국 산업신기술부, 외교부, 에너지 부, 경제개발부, 하틀론주, 투자위원회 등 관련 부처 고위인사들 과 면담 계기에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 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
 - ※ 23.10 한-타 외교장관 회의, 23.10월 통상교섭본부장 타직 방문 등 계기 동 사업의 안정적 추진 협의
- 2023.12월 이후 타직 정부와의 투자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A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대사관은 타직 대통령과의 면당을 요청하고, 우리 대사와 A사 대표단이 참석하여 대통령과의면당을 갖고 애로사항 논의, 타직 대통령은 동면당 자리에서 조속한 시일 내 투자협약서 체결을 타직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시

4. 공관 조치 결과

■ **2024.1월** 2023.12월 타직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A사와 타직 정부 간 투자협약서 체결

- 그간 서방 선진국 기업의 투자 진출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 기업 진출 사례도 전무한 등 투자 진출 관련 레퍼런스 및 정보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 진출이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구조임.
- 또한, 대부분의 투자 사업은 정부 내 핵심관료 등 일부 권력층과 이들과의 친소관계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바, 특 히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진출 전 현지 정보 및 사업 관행 등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

■ A사의 경우, 현지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제한된 네크워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애로를 겪었는바, 우리 대사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동시에 정부간 양자 협의 계기 등을 활용하여 주재국 정부의 관심을 제고한결과 우리 기업의 투자체결로 이어질 수 있었음.

태국대사관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통해 0% 관세율 적용 조치 완료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벽돌 제조 기계(8474.80)를 수입하는 업체로 기계 가동에 필요한 스틸 팔레트를 함께 수입하면서 이를 기계 부분품(8474.90, AK 0%)으로 신고하였으나 램차방 항만 세관에 서 해당 물품을 기타의 철강 제품(7326.90, 기본 35%, AK 5%) 으로 분류하고 35% 세율 적용과 벌금 부과★를 통보
 - * 관세, 부가가치세, 벌금(추징세액의 2배) 등 총 약 9,100만 원 상당

- 2022.12월 A사는 우선 보증금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을 반출하였으며, 이후 수입하는 동일 제품은 주재국 측의 품목분류 의견에 따라 7326.90으로 신고하고 5%의 세율을 적용받아 통관을 진행함.
- 또한 35%의 관세율 대신 한-아세안 협정세율(5%)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재국 측은 HS코드가 상이함에 따라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한국 측에 원산지 검증을 요 청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2.12.7. A사는 주태국대사관에 통관 애로를 접수하였으며, 주태국대사관 관세관은 해당 업체, 통관업체와 램차방 세관을 방문하여 해당 건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고, 업체와 한국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하였음.
- 램차방 세관은 해당 제품이 기타의 철강 제품(7326.90, AK 5%) 에 해당하므로 본청 원산지 검증 부서를 거쳐 한국 측에 정식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검증 결과에 따라 원산지가 한국으로 확인되는 경우 협정세율 5%를 적용하여 세금과 벌금을 재산정하여 고지할 것이며 이미 납부한 보증금과의 차액은 환급 가능하다고 덧붙임.
- 주태국대사관 관세관은 램차방 세관에서 해당 제품을 기타의 철 강 제품(7326.90)으로 판단할 경우 주재국 관세청 품목분류 부서에 정식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A사에 한국 관세청의 국제통관 분쟁을 접수하여 지원을 받도록 조치하였음.
- 이후 주재국 관세청 본청 품목분류부서와 원산지검증부서와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램차방 세관 내부 위원 회에서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23.3월 위 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음.

4. 공관 조치 결과

■ 2023.3월 램차방 항만세관은 위원회를 거쳐 해당 제품의 세번을 7211.90.19(기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AK 0%)로 최종 결정하고 원산지 검증 절차를 진행함.

- 7210.90.19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이 0%이며 원산지 결정 기준 또한 8474.90과 동일하므로 A사는 더 이상 품목분류에 대해 다투지 않고 향후 해당 세번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할 수 있음.
- 2023.6월 램차방세관은 한국 측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23.7월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완료 후 HS코드를 변경한 수정 원산지 증명서를 주재국 측에 송부하였으며 '23.10월 A사는 원산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이미 납부한 보증금과 이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한 관세 등 약 100만바트(약 3,800만 원)를 환급받음.

- 품목분류 관련 통관 애로는 통관지 세관, 품목분류부서, 원산지 검증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관계되고, 원산지 검증 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분쟁 발생 이전에 관세 당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사전 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유리한 품목분류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의 국제분쟁 신청, 품목분류 의견서 및 해외사례 확보 등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튀르키예대사관

현지 진출 기업 반덤핑 제소 및 수입관세 인상 관련 지원

1. 사례 개요

- 2023.9월 튀르키예 국내에서 연간 30만 톤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을 생산 중인 우리 기업 A사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제조업체의 對 튀르키예 저가 수출 공세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수입관세* 인상 조치 및 반덤핑 제소 등과 관련하여 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함.
 - * 동 생산 제품 수입관세는 2022년 12%에서 8%로 인하되어 저가 제품 수입은 대폭 증가하였고 A사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상황
- 또한, EU는 튀르키예 국내 유통업체들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을 튀르키예산으로 표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 함에 따라,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면서, A사는 對 유럽 수출판 매를 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경영상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음.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5월 튀르키예 내 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을 우리 A사의 제품이라고 위조하여 EU에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여, 이를 조사해 줄 것을 주재국 무역부에 요청함.

■ 2023.9월 주재국 무역부 관계자를 접촉하여,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해 동제품 수입관세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월 주튀르키예대사관은 동 건 접수 즉시 주재국 무역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차관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23.12월 대사-무역부 차관 간 면담 시 A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2023.11월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주재국 재무장관을 초청하여 우리 진출 기업들이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동계기에 A사의 애로사항이 재무장관을 통해 무역부에 전달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월 A사는 주튀르키예대사관과 면담 시, 주재국 재무부로부터 산업 피해 타당성이 있다는 긍정적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제소 발표 시점까지 지속적 관심을 요청함.
- 2024.1월 주재국 무역부는 철강 제품 관련 수입 관세를 애초 8%에서 12%로 인상한다고 발표함.(2023.12.31. 관보 고시)

- 주재국의 경우 고위급에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관계 부처의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애로사항을 지원한 사례임.
- 우리 대사관은 향후에도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재국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할계획임.

파푸아뉴기니대사관

우리 원양어업 기업의 파푸아뉴기니 해역 입어권 협상 타결 지원

1. 사례 개요

■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인근 해역을 포함한 남태평양은 주요 참치 어장으로 우리 원양어업 기업들은 협상단을 구성하여 조업 권을 보유한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매년 협상하고 있으나, 2023 년에는 엘니뇨 현상 등에 따라 예상 어획량이 감소하여 2024년 입어권 협상은 난항이 계속됨.

- 우리 원양어업 기업 3사로 구성된 협상단은 2023.9월 PNG 정부 와 화상회의로 2024년 입어권 협상을 하였으나, 연간 조업시간 에 이견이 있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함.
 - 최근 남태평양에서는 엘니뇨 현상으로 참치 어장이 이동하여 PNG 인근 해역에서는 어획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협상단은 조업시간 축소를 제안하였으나, PNG 정부는 조업시간 축소에 따른 조업료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협상은 결렬

■ 이에 따라 우리 원양어업 기업들은 PNG 정부와 대면 교섭을 통한 2024년 입어권 협상 타결을 목표로 2023.11월 초 PNG를 직접 방문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1.6.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우리 원양어업 기업들로 구성된 협상단 일행과 PNG 주재 우리 명예 해양수산관을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 계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협상 타결을 위한 지원 사항을 문의하며 격려함.
 - 우리 협상단 대표는 2023년도에 PNG 인근 해역에서 1,000시 간을 조업하는 기준으로 한 입어료를 PNG 정부에 지급하였으 나, 최근 엘니뇨 현상으로 어획량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2024년도에는 조업 시간을 500시간으로 감축하겠다고 PNG 정 부에 제시하여 결렬되었다고 하면서, 대면 협상에서 접점을 찾 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 주파푸아뉴기니대사는 최근 EDCF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PNG 항만개발 협력 사업, PNG 해상안전청(NMSA) 대상 2024년도 소규모 무상원조 계획 등을 설명하며, 해양 분야에서 도 한-파푸아뉴기니 관계가 우호적이므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측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잘 합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다고 회답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8. 우리 협상단은 PNG 정부에 2024년도 600시간 조 업을 기준으로 한 입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우리 대사관에 결과를 연락하면서 대사에게 사의를 표명함.

- PNG 인근 해역은 우리 원양어업 기업들의 주요 참치 어장이며 PNG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있어서 조업료 수입은 주요한 외화획득 수단이므로, 입어권 확보 및 조업 안전을 위해 PNG 정부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가 중요함.
 - PNG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어업 관련 교육 훈련 등 현지 수산 업 발전을 위한 해양 분야 개발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면 우리 원양어업 기업들의 입어권 확보 및 조업 안전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사료

폴란드대사관

기업 주재원과 가족의 주재국 거주증 신속 발급을 위한 지방정부-기업 간 간담회 개최

1. 사례 개요

- 주재국에 근무하는 우리 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주재국에 안 정적으로 거주하고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재국 지방 정부가 발급하는 거주증의 신속한 발급이 필수적
- 그러나 주재국 지방 정부의 행정 시스템 미비, 예산 및 운영 인력 부족 등 때문에 거주증 발급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반을 소요, 이에 우리 국민의 무비자 거주 허용 기간인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증이 발급될 때까지 출장, 여행 등에 필요한 해외 이동이 불가하여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만성적으로 반복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 기업들은 공관 주최의 '기업활동지원협의회' 및 각종 계기에 주재국 지방 정부의 거주증 발급 지연의 애로를 호소하며 공관 차원의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

■ 특히 여타 지역에 비해 S 지방의 경우 거주증 발급에 소요되는 기한이 상대적으로 길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폴란드대사관은 중앙정부(외교부, 경제개발기술부) 고위급 인사 및 지자체장(주총리 및 주지사(발급 주체)) 면담 계기마다 동 애 로사항을 제기하고 지방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과 관심을 요청 (※ 우리 정부의 KSP 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정부 시스템 도 입 등도 제안)
- 이와 더불어 2023.3.27.일 주재국 S 지방정부 책임자와 우리 기업 간 간담회를 개최, 우리 기업이 관련 애로사항과 사례를 직접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거주증 발급 지연의 원인과 개선 방안 등을 우리 기업에 직접 설명하여, 상호 소통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 특히 S 지방정부는 최근 거주증 발급의 원인이 기술적인 이유 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물리적인 이유에 있음을 우리 기업에 설명하여 우리 기업의 불만을 다소 완화

4. 공관 조치 결과

■ S 지방정부는 ▲서류접수 창구 증설, ▲온라인 신청 문의 대응 전용 이메일 신설, ▲신속 발급 사유서 제출 시 우선 발급 고려 등의 방안을 우리 기업에 제안하여 추진 중

- 주재국의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는 만성적이며 주기적으로 반복 제기되는 애로사항이며, 비단 한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재국에 진출한 모든 해외기업 종사자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 우리 공관은 S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및 진출 증가세, 우리 교민의 규모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거주증의 지 연 발급이 우리 기업의 활동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 여 지방정부를 설득
- 거주증 발급 지연 문제는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 예산 확충, 발급 담당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 개선 등 지방 정부 차원의 복합적인 행정 개선이 필요한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이나, 대사관 차원에서도 우리 기업의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주재국의관심과 개선 방안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우리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주선하는 노력도 필요

프랑스대사관

한불 배터리 산업 협력을 위한 비자 지원

1. 사례 개요

- 프랑스 배터리 제조기업 A사는 수조원을 투자하여 프랑스 북부에 배터리 공장 건설(기가 팩토리 프로젝트)*을 추진 중이며, B사 등 3개 한국기업들이 A사의 셸 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재료혼합 장비의 납품·설치, 배관 및 전기배선 공사를 담당하게 된상황
 - *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프랑스 북부 지역에 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 (연 170GWh 생산, 연 340만 대 전기차에 공급 가능)
 - ① ACC(프, 독) 두브랑(Douvrin) 프로젝트: '23년 말 가동, 24억 유로 투자, '30년 40GWh
 - ② Envision AESC(중) 두에(Douai) 프로젝트: '24년 가동, 20억 유로 투자, '30년 24GWh
 - ③ Verkor(프) 덩케르크(Dunkerque) 프로젝트: '25년 가동, 18억 유로 투자, 12GWh
 - ④ Prologium(대만) 덩케르크(Dunkerque) 프로젝트: '26년 말 가동, 52억 유로 투자, 48GWh
- B사 등 3사는 2023.11월 초~12월 초 엔지니어 36명을 순차적으로 프랑스 현장에 파견해야 했으나 주한프랑스대사관은 11월 말이후 비자 인터뷰를 시작할 수 있다고 답변
 - * 일반적으로 인터뷰 후 비자 발급까지 2~3주 소요

■ 이에 대해 우리 공관은 주한대사관, 프랑스 경제부 등과 적극 소통하여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모든 비자가 순차적으로 발급되어 공장 설립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6. B사는 이메일을 통해 주프랑스대사관 상무관에게 프랑스 입국 비자 인터뷰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요 청
- 2023.10.10. 주프랑스대사관은 프랑스 경제부 기업총국, 주한프 랑스대사관에 한불 산업 협력 차원에서 신속한 비자 인터뷰 진행 요청
- 2023.10.11. 주한프랑스대사관 영사과는 주한프랑스대사, 경제 과와 협의하여 인터뷰 시간을 특별 배정했다며 인터뷰 시간표를 우리 대사관으로 송부

3. 공관 조치 결과

- 2023.10.12.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는 프랑스 외교부, 내무부, 주한프랑스대사관 회의를 통해 주한프랑스대사관이 한국 배터리 기업을 위한 별도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향후 신속한 비자 발급을 지속 지원하기로 합의
- 2023.11월 초-12월 초 36명 엔지니어 전원 비자 발급 완료

-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산업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상기 비자 발급 요청이 한불 산업 협력 차원에 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평가
 - 우리 대사관에서도 상기 기가 팩토리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더불어 양국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한 것이 프랑스 측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주효
 - *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재산업화를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배터리는 반도체와 함 께 최대 관심 분야
 - 프랑스 정부는 2023.10월 공장 설립 기간 단축, 배터리 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을 담은 녹색산업법 제정
 - *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분야: 배터리,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 2023.10월 한불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프랑스 측은 한불 배 터리 산업 협력에 큰 관심 표명

호주대사관

우리 기업의 주재국 LNG 수출제한제도 개정 대응 지원

1. 사례 개요

- 2022.7월-2023.3월 동 기간 동안 호주 연방정부는 2017년 7월 부 시행한 LNG 수출제한제도(ADGSM)*의 연장 시행 및 개정을 골자로 하는 근거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음.
 - * Australian Domestic Gas Security Mechanism : 호주 국내에 천연가스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 시 내수용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비상 메커니즘으로 애초 2023년 1월 1일부 일몰 예정이었음.

- 2022.7월-2023.3월 우리 기업 A사는 호주 연방정부가 동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칫 우리 기업이 이미 체결한 장기 LNG 도입계약 이행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호주대사관에 동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와 민관합동 대응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함.
- 한편, 우리 기업은 LNG 사업 파트너사 및 업계 대표기관과 동 제도 개정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이 한국에 도입하기로 예정된 장기계약 물량에 대한 보호 조항 신설 등을 요청하고 주재국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2.7월~2023.3월 주호주대사관은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과 주재국 정부 측간 협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정과 관련한 주재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및 보고하면서 양국 정부간 공식 논의를 지원하였음. 한편, 주재국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수시로 면담·교섭하면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의의견과 요청 사항이 개정된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주재국 업계 인사들과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3월 상기 호주대사관의 지원 조치의 결과로, 개정된 제도 운영 지침에 우리 기업의 장기 LNG 도입 계약 물량에 대한 보호 조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들이 명문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일조하였음.
 - * 향후 ADGSM이 발동되더라도 동 장기계약 건에는 미적용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기업의 주재국 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상기 LNG 수출제한제도 개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호주대사관은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에 적극 임하는 한편, 우리 기업 및 관련업계 주요인사 등과 다방면으로 공조 활동을 전개한 노력이 상기 성과를 거두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됨.

■ 주호주대사관은 동 제도가 최초 도입된 지난 2017년 무렵부터 꾸준히 주재국의 관련 정책 및 제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과 원활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며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재국과의 에너지 협력 외교 및 에너지 분야 우리 기업 지원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평소 주재국 정부 및 업계주요 인사들과 상호 우호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 및 유지해 온점이 동 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임.

호치민총영사관

기업 사업 범위 확대 인허가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B성에서 제강 분진을 수거한 후,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산화아연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제강 분진 수거 범위를 베트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신청서를 성 당국에 제출함.
 - 애초 최초 투자 시 성 당국으로부터 추후 제강 분진 수거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으나, 성 당국에서 환경 문제를 들며 다른 지역의 제강 분진 수거에 부정적 입장표명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3월 제강 분진 수거 지역을 베트남 전역으로 하는 인허가 신청서를 송부 하였으나 당국이 환경 문제를 들며 인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없었음.
 - 제강 분진 수거 지역이 제한되면 투자한 설비를 다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업이 이익을 내기가 불가능한 상황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8월 주호치민총영사관은 A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 강 분진의 자유 수거와 이동을 허용한 베트남 법령에 기반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제강 분진 수거 확대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
- 2023.8월 주호치민총영사는 성 당서기, 인민위원장 면담 계기 베트남 법령에 따라 A사의 제강 분진 수거 확대 신청을 조속히 검토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
- 2023.9월 B성의 부인민위원장이 고위급 한국 출장 지원 협의를 위해 주호치민총영사관 방문시 A사의 인허가를 촉구하고 긍정적 답변을 청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0월 성 인민위원장은 A사 인허가에 대해 곧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총영사에게 언급
- 2023.12월 A사 법인장 및 주호치민총영사관은 성 당국의 내부 검토 종료 후, 인허가 승인 공문을 받을 것이라는 고위 당국자의 답변을 청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베트남은 지방 정부의 권한이 큰 편으로 베트남 법규 변경 이후 에도 하위 지방조례 등의 변경이 지연되어 기업들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음.

- 베트남 법률에 따라 가능한 사업임에도 허가 당국의 행정 처리 가 지연되어 정당한 사업 확대 또는 인허가 지연이 발생함.
- 이러한 경우 총영사관 등 공관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해결이 가능함.

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1. 사례 개요

- 2023.2월 박린성 소재 A통상은 통신장비, 운동 용구 등을 제조하여 미국, EU 등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동사 제조 운동 용구 (Treadmill, HS 품목번호 9506호)의 미국 수출에 필요한 수출용원산지증명서(C/O) 발급을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신청함.
-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외국산 부품(모터, HS 품목번호 8501호)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C/O 발급을 보류하였고 원가계산서, 부품 명세서 등의 자료 보완에도 C/O 발급 불허 및 담당자 면담 거 부 상황 지속('23.2.7~4.5)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2월 해당 기업은 현지 관세 법인을 고용하여 베트남 상공 회의소가 요구하는 제조공정 설명자료 등 다수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
- 2023.3월 C/O 발급이 지연되며 수출 대금 영수 차질, 생산 중 단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주호치민총영사관에 지원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3.21. 주호치민총영사관 관세영사는 민원 파악 즉시 미국 원산지규정, 미국 국제무역법원 원산지 판례를 연구하여 "쟁점 물품 원산지가 베트남"임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및 근거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이메일 발송
- 2023.3.24. 관세영사는 대한상공회의소(KCCI) 하노이사무소장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베트남 상공회의소 담당 부서장 면담 및 방문 추진
 - * 베 상공회의소 면담 확정(4.11)에 따라 관세 영사 호치민→하노이 출장 (4.10~11)

4. 공관 조치 결과

■ 2023.4.10.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면담예정일(4.11.) 전일, 쟁점 물품에 대한 C/O 발급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4.14일 C/O 발급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베트남 정부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물품이 자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것을 우려, C/O 발급심사를 강화하여 발급기관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발급 지연 및 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문제 인지와 함께 공관과 현지 진출 전문기관(KCCI)이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강구, 대응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로 평소에 공관↔현지 진출 공공기관↔민간 전문가 그룹 간 협업·소통 채널을 유지한 것이 주효함.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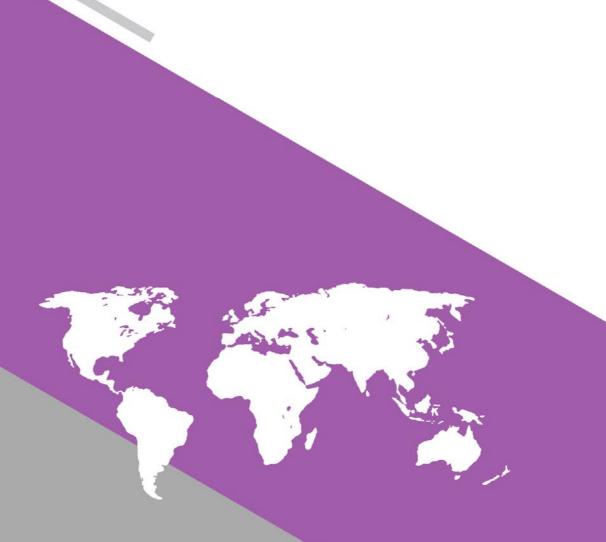






ΙΙ

미수금 해결 지원 사례



미얀마대사관

진출 은행 예치금 회수 지원

1. 사례 개요

- 미얀마의 경우 해외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여 각국의 은행들도 진출하였으나 2021.2.1.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로 인하여 외국계 은행의 경우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임.
- 2021.2월 미얀마 진출 우리 은행들이 영업인가를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이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 후 미국 의 금융 제재로 인하여 미국 뉴욕연방준비제도에 입금된 미얀마 중앙은행의 자금이 동결됨에 따라 반환이 어렵게 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1.2월 미얀마 진출 우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미얀마 중앙 은행 및 미국 뉴욕연준 등과 협의하여 예치금 회수를 위해 지속 해서 협의하였으나 한계가 있어 주미얀마대사관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1.3월 주미얀마대사관은 미얀마 중앙은행에 미국 금융 제재 조치로 인한 예치금 동결 해결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함.
- 2022.9월 진출 은행 공동명의로 작성된 미얀마 중앙은행 앞 서 한을 주미얀마대사관 명의 공한으로 전달함.
- 2023.6월 진출 은행의 미얀마 중앙은행 총재 면담 지원

4. 공관 조치 결과

■ 2023.9-11월 진출 은행 중 일부 은행이 미지급된 예치금 중 일부(2천만 달러)를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례는 미얀마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은행들의 예치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관련 공관 및 본부 간 협업과 주미얀마대사관에서 진출 은행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얀마 중앙은행과 협의하여 애로를 일부 해소한 사례임.
- 다만, 현재도 미지급된 예치금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밀라노총영사관

우리 기업의 사기 피해 사건 관련 지원

1. 사례 개요

■ 2023. 3월-11월 A사, B사, C사 등 우리 기업 3곳이 밀라노 소재 X사로부터 사기로 의심(대금을 송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되는 피해(합산 규모 약 7천만원)를 입었다는 한국업체들의 신고를 다수 접수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4월 우리 업체 A사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조정을 진행 중이나 상대방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아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법원 판단은 2024.2월에 내려질 예정)
- 2023.12.22. 우리 업체 C사는 직접 밀라노를 방문해 현지 경찰에 X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4월 우리 업체 A사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

- 2023.12.1. 주밀라노총영사관 담당 직원이 밀라노 소재 X사 주 소지를 방문해 사무실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
- 2023.12.4. X사 관계자와 연락, 파산 여부 및 한국 업체 대금 반환 여부 등을 문의
- 2023.12.5. 국내 피해업체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 사건 개요 및 상세 피해 내역 등을 파악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
 - 사기 피해 의심 시 현지 경찰 신고, 업체가 실제 파산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조정, 채권 청구, 밀라노 상공회의소를 통한 조 정 신청 등의 방법이 있음을 안내
 - 업체가 주장하는 대로 파산 절차를 밟는 중인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파산관재인(curatore)이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는바 채권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와 증거 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
- 2023.12.5. X사 앞으로 주밀라노총영사 명의 서한을 발송, 한 국업체들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피해업체들과 조 속히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
- 2023.12.7. X사가 공관 대표 메일로 회신을 송부, 현재 파산신 청을 한 상태로 더 이상의 송금이나 물품 발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청산 담당 기관에서 채권 자들에게 직접 연락이 갈 것이며, 동 내용을 한국업체들에도 이 메일로 설명하였다고 해명
- 2023.12.22. X사를 경찰에 고발하기 위해 밀라노를 방문한 우리 업체 C사 직원을 주밀라노총영사관에서 면담해 사건 동향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총영사 주최 오찬 개최. 경찰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제출용 사건 경위서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제공

4. 공관 조치 결과

■ 주밀라노총영사관의 지원으로 우리 업체 C사가 가해 기업 X사를 밀라노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 완료. 주밀라노총영사관은 조만 간 경찰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건 해결 및 피해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단일 이탈리아 기업이 복수의 우리 기업에 금전적 손실을 입힌 사례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 해당 기업에 대한 소송, 고발 등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뿐 아니라, 변호사 소개, 화상 대책 회의 개최, 주밀라노총영사 명의 서한 발송, 번역 지원 등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였으며, 공관 차원에서도 해당 기업을 접촉해 입장을 전달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

아랍에미리트대사관

A사의 발전소 미수금 분쟁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주재국 내 복합화력발전소 시공 중 정부의 인 허가 지연, 과도한 현장 출입 통제 등 발주처 비협조 등으로 공 기가 지연되는 등 손실이 발생하여, 2017.10월 프로젝트 완공 이후 공기 연장 및 비용 보상을 요구
 - 그러나 발주처와 상급 기관인 수전력공사는 오히려 공기 지연 (6개월)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하여 상당 기간 분쟁이 지속
 - ※ A사는 17년경 발주처와 구두 합의로 9천 6백만 불 비용 보상을 요구했으나 상급 수전력공사는 조직 통폐합·경영층 변동으로 요구안 검토를 장기간 미루어왔고, 새 경영층은 보상 요구를 불인정하고 과도한 지체 배상금(6개월 지연 최고액 148백만 불) 요구
- 특히, 2022.10월 A사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과 우리 정부 및 공관 지원 결과 A사와 발주처, 수전력공사 간 공기 연장 및 비용보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아부다비 에너지부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 무산될 우려가제기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17년부터 현지 발주처와 수전력공사 등 이해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비용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
- 2022.10월 A사, 발주처, 수전력공사 3자 간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아부다비 에너지부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 이후 A사는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동 사안이 해소되지 않 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협조를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3.2. 주아랍에미리트대사는 아부다비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
 - 동계기 우리 기업 A사와 현지 발주처 및 수전력공사 등 3자 간 공기 연장 및 비용 보상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미수금 문제의 우호적인 타결을 위해 아부다비 에너지부의 합 리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승인을 요청
- ~ 23.9월 분쟁 종결 시까지 공관 내부적으로 해외 건설 수주지 원협의회, 개별 기업 면담 등을 통해 미수금 분쟁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

4. 공관 조치 결과

- 2023.3월 주아랍에미리트대사-아부다비 에너지부 장관 면담
 - 동 면담 시 UAE 측으로부터 A사 등 3자 간 합의안에 대해 신속하게 승인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도출

- 2023.3.7. 아부다비 에너지부는 수전력공사 측에 3자 간 합의 안 승인 통보
- **2023.8.8.** 아부다비 집행이사회, 상기 승인 절차 완료
- 2023.8.19. A사, 발주처, 수전력공사 등 3자 간 최종 공동합의 서 서명
- 2023.9.11. 합의서에 따른 보상금 및 기성급 지급 절차 진행 ⇒ 미수금 분쟁 종결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건설 기업이 공기를 맞추더라도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받지 못하는 등 미수금 문제가 존재하며, 여러 이 해관 계자들의 이해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등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
 - UAE에서도 발주처 등이 건설 공사 중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한 비용 보상에 소극적 입장이고, 발주처, 수전력공사, 아부다비 에너지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 으로 문제 해결에 상당 기간이 소요
- 우리 공관은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UAE 측 고위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및 신뢰 관계하에 적시에 고위급 인사 면담을 진행하고, 주재국 측으로도 우리 정부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 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결과적으로 동 노력이 미수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 우리 공관은 앞으로도 주재국 내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에 경청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주재국과의 우 호적인 관계를 강화하여 기업지원 노력을 기울일 예정

에티오피아대사관

주재국 외환 부족에 따른 수출 대금 지연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2022.11월 우리 기업 B, C, D사의 對에티오피아 수출에 대한 L/C 대금 결제 지연 관련 대사관 지원 요청. (수입 업체는 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외환 부족을 이유로 수개월간 한국 기업에게 대금 송금을 보류)

2. 기업의 대응조치

■ 상기 기업들은 우리 코트라 사무소에 지원을 요청, 코트라는 22.9 월부터 은행 방문(18회), 결제 서한 발송(3회) 등의 조치를 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2.12월 이후 △관련 은행 및 에티오피아 외교부 앞 공한 발송(3회), △대사관 자문 변호사 서한 발송(1회), △은행과 수차례 유선 접촉, 결제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호소
- 2023.2월 대사관 공사참사관, 관련 은행장 면담, 조속한 대금 결제 처리 요청 및 실무선 지속 접촉

4. 공관 조치 결과

- 2023.2월 은행 측, B사(22.8월부터 지연) 미수금 전액(29만 불) 송금 대사관 통보
- **2023.5월** C사(22.7월부터 지연) 미수금 전액(7.6만 불) 송금 확인
- **2023.8월** D사(22.11월부터 지연) 미수금 전액(48.3만 불) 송금 확인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재국 정부의 외환통제 정책에 따라 민간 은행들은 외환수입의 70%를 에티오피아 국립은행에 납부하고, 대신 현지화를 받고 있으며, 민간 은행은 30%의 외환으로 모든 외환거래를 처리해야하는 상황으로 유사 사례 지속 발생 가능성이 높음. 동 상황을 코트라와 협력, 우리 수출기업들에 공지하는 등의 예방 활동 강화

우한총영사관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미수금 회수 관련 애로사항 해결

1. 사례 개요

- 2021년 우리 기업 A사(한국 소재)는 중국 기업 B사와 법적 분쟁이 발생, 2차례 중재재판(중도금에 관한 중재, 잔금에 대한 중재)을 진행하여 승소
- 그러나, 중국 기업 B사는 화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이춘시 법원은 B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결정, 22.11월 동 법원은 강제 집행 기관을 중국 기업의 소재구인 이춘시 C구 법원으로 이관하다는 요청을 상급법원에 신청
- 상급 법원이 동 건 이관 결정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어 우리 기업의 미수금 회수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황 발생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2년 말부터 2023년 4월 초까지 A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춘시 중급법원에 이관 진행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해당 중급법원으로부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음에 따라 주우한총영사관에 지원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4.11. 성정부 및 해당 법원 등 관계 기관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관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 주우한총영사관 자문 변호사와 동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변호사 의 법적 조언 내용을 우리 기업에 전달
- 주우한총영사는 2023.4.18.-20. 성정부 고위 인사(부성장 등) 면 담 시 동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성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성정부측은 미수금 상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 성정부측은 이후 해당 중국 기업에 직접 연락하여 동 사안의 진 전사항을 확인하고, 중국 기업 B사가 한국 기업 A사에게 미수금 지불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총영사관에 알려옴.

4. 공관 조치 결과

■ 2023.6월 A사는 미수금 상환 관련 중국 기업 B사와 상환 절차 및 시기(23.8.1.-24.1.31.)에 대해 합의함에 따라 미수금(46만 불)을 받게 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동 사안은 우리 기업이 중국 법정에서 승소하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6개월간 별다른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중국기업이 미수금 상환 일정에 합의하고, 실제 미수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례임.

이집트대사관

프로젝트 미수금 지급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E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2호선 전 동차 공급사업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이집트 정부에 유로 화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집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달러화로 사업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나, 유로-달러 환율 변동으로 이집트 정 부가 우리 기업에 지급해야 할 달러화가 부족해져 물품 공급 후 에도 사업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년 상반기 이집트 정부 측에 EBRD 차원의 예비 자금 신청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미수금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관련 절차 진행은 계속 지연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7월 주이집트대사는 이집트 소관 부처 장관 면담을 통해 동 문제를 상세히 제기하고 이집트 측에서 EBRD 자금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2023.7월 주이집트대사-이집트 소관 부처 장관 면담 직후 이집 트 측에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면담 약 1주일 만에 우리 기업은 그간의 미수금 전액을 받음.

카라치분관

한전 KPS 미수금(운영 대금)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2023.3월 우리 기업 한전KPS A지사장은 자사의 애로사항 상 담을 위해 주카라치분관 총영사와의 면담을 신청함.
- 2023.4.3. A지사장은 한전KPS가 2009년부터 파키스탄에서 석 탄 화력발전소 운영관리(operation & management) 사업을 수 행해 왔으며, 최근 계약만료에 따라 운영 대금을 회수하고 철수하고자 하였으나, 주재국 중앙은행(SBP)이 외화 부족 상황을 이유로 운영 대금 해외송금을 승인해 주지 않아 철수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을 요청함.
 - 미수금 현황 : 총 \$3,518,049 (B 발전소 운영 대금 \$2,412,069 및 C 발전소 운영 대금 \$1,105,980)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2.8월-2023.3월 한전KPS는 발주처인 B 발전소 및 C 발전소와 협조하여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운영 대금 해외송금 신청에 대한 승인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으나, 승인받지 못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4.4. 파키스탄 중앙은행 부총재(은행 및 외환시장 담당) 앞으로 송금 승인 및 면담 요청 공한 송부
- 2023.4월 파키스탄 중앙은행 담당 부서에 유선 및 이메일로 협 조 및 면담 주선 지속 요청
- 2023.5.11. 주카라치분관 총영사는 A지사장과 함께 파키스탄 중앙은행 외환관리국장을 면담하여 해결 방안을 협의한 결과, 주 재국의 외화 부족 사정을 감안, 운영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분할 송금을 하기로 합의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5.12.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C 발전소 운영 대금 \$1,105,980의 해외송금을 승인하였고, 한전KPS는 5.17. 이를 수 령함.
- 2023.6.7.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은 B 발전소 운영 대금 \$2,412,069를 6~8월간 분할하여 송금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한 전KPS는 6.7. SBP의 승인 공문을 접수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재국이 2022년 말부터 심각한 외화부족으로 달러의 해외송금 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우리 분관이 적극 교섭하여 소액 분할납부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함.

탄자니아대사관

수출 기업의 미수금 해결 지원

- 1. 사례 개요
- 2023.5월 우리 기업 A사, 탄자니아 바이어에게 종이류 품목 수출
- 2023.7월 탄자니아에 물건 도착 후 잔금 약 6,000불을 지급하 기로 했으나 잠적
-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6월 바이어에 지속적으로 이메일 및 메신저를 보냈으나 바이어 측은 무응답
-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1월 공관에서 해당 바이어의 이메일 및 메신저 통해 연락 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회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 2023.12월 선하증권(B/L)을 입수하여 바이어의 납세자 식별번호 조회,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함. 개인사업자는 주소지를 조회할

수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계속 연락이 안 될 경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음을 바이어 측에 피력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경찰에 협조 요청한 후 바이어 측에서 외국 출장 중이었다고 회신해 왔으나, 수입품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잔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바이어가 미수금 지급 의사를 밝혔으나, 장기간 무응답으로 일관 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지급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모 니터링 필요

파나마대사관

우리 기업 A사의 수주 사업 미수금 문제 해결

1 사례 개요

■ 파나마 국영기업이 발주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던 현지 진출 우리 기업 A사는 2023.8월 말 주파나마대사관을 방문, 수 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사업 대금 지급 승인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동 문제가 지속될 때 사업 철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당관에 관 련 애로 해결 지원을 긴급히 요청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발주 고객사인 주재국 국영기업 측에 대금 지급 지연 원인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며, 동 국영기업은 감사원에서 사업 대금 지급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기업 측도 정확한 파악이 어려우나 감사원에 기 누적된 다수의 여타 검토 건으로 인해 A사에 대한 승인 건 검토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파나마대사관은 A사측의 지원 요청 접수 즉시 2023.8월 말 그 간 당관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온 주재국 감사원장과 공관장 간 협의를 지급 주선하고, A사가 시공 중인 사업 개요, 미수금 발생 경위 및 현재 상황, 미수금 문제의 심각성 등을 적극 설명 감사원장에게 조속한 검토와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

4. 공관 조치 결과

■ 주재국 감사원장은 당관의 요청 즉시 현장에서 감사원 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문제 해결을 지시하고, 직후 당관 공관장을 유선 접촉하여 관련 건에 대한 감사원 내부 검토 결과를 통보해 줌. 이어 추진된 주파나마대사-주재국 감사원장 간 업무 협의를통해 A사가 주파나마대사관에 요청한 동 미수금(약 100억 원)건 및 여타 관련 계약 미수금 건(3건)도 병합 해결 처리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해외시장 개척 및 조달시장 참가 지원 사례



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남아공 전력공사(Eskom)가 발주한 변전소의 배터리전력저장장치(BESS) 공급계약(약 1,900억 원 규모)을 2022년 수주한 이후 2023년 실질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납품 시까지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8월 A사는 공사 준비 단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설치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애로사항 관련 주남아공대사관에 지원 요청
 - 구체 요청 사항: 한국인 기술 인력의 비자 문제, 공사장 주변 지역의 치안 및 안전 문제,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 기 유사 사업 추가 발주를 위한 주재국 내 관련 인사들과의 네 트워크 지원 등

 \prod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3월 주남아공대사관은 A사 파견 인력으로부터 공사 진행 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특히 프로젝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역사회원들의 취업 요구 시위 및 공사 방해 관련하여 타 기업의 사례들을 공유
- 2023.8월 주남아공대사관은 A사에 남아공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아공 광물자원에 너지부 산하 신재생에너지 담당국인 IPP 국장 등을 연사로 하는 한-남아공 비즈니스포럼에 초청
- 2023.11월 주남아공대사관은 A사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BESS) 완공 및 시운전 후 열린 프로젝트 사이트 전달식 (handover)에 참석하여 주남아공대사의 기조연설 및 참석 기회를 활용하여 행사에 참석한 공기업부 장관, 웨스턴케이프 주지사, 남아공 전력 공사 부사장 등과 면담을 통해 A사 프로젝트가추가 프로젝트 수주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
- 2023.12월 주남아공대사는 A사의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BESS) 완공은 그 규모 면에서 아프리카 최초라는 점과 특히 A 사가 아프리카에서는 이례적으로 준공기한을 준수하고, 예산 범 위 안에서 완공했음을 강조하는 주재국 뉴스 채널 생방송 인터뷰 진행을 통해 A사의 기술 및 업적 홍보
- 2023.12월 주남아공대사는 A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설명 및 향후 수주를 위해 남아공 전력공사(Eskom)를 관리 및 감독하는 공기업부 장관과 A사 만찬 면담 진행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주남아공대사관은 A사가 수주 이후 공사 진행 기간 동안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조력가능한 범위내에서 조력하였으며, 특히 프로젝트 완공 후 A사의 기술 및 업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향후 유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력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A사의 BESS(배터리전력저장시스템)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 남 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초이며, A사는 공기한을 준수 하고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완공하였는바, 특히 아프리카에서 시 공 기한 준수는 극히 드문 예라고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우 리 기업의 강점들을 잘 보여준 좋은 선례
- 또한, A사는 지역사회원들을 청소부, 방범 요원 등으로 채용하여 지역 사회 내 고용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좋은 협력관 계를 유지하는 등 남아공 내 좋은 기업 이미지 창출

남아공대사관

남아공 전력시장 진출 지원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A사는 2020년, 2021년 외국업체 자격으로 발전소 정비사업을 수주
 - 단, 남아공 전력공사는 A사가 외국업체 자격임에도 발전소 정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남아공 전력 사정 악화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순환 단전(Loadshedding)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하면서, 2023년 입찰 참여시에는 △남아공 현지 법인 설립 및 △흑인경제육성정책(BBBEE) 준수할 것을 통보
 - 또한, 2020년, 2021년 수주 사업도 가능한 범위 내 BBBEE 요 건을 준수하도록 통보
- A사는 상기 남아공 전력공사의 요청 사항에 따라 현지법인 설립 및 BBBEE 요건을 성공적으로 준수하여, 2023.8월 남아공 전력 공사(Eskom) 16개 화력 발전소 정비 사업 수주(수주액 총 850 억 원)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8월 A사는 남아공 전력공사에서 요구하는 현지 법인 설립 및 BBBEE 준수 요건 관련 주남아공대사관에 지원을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2월 주남아공대사관은 A사와 남아공 전력공사(Eskom) 인사와의 면담 주선 및 이를 통한 입찰 정보 파악
- 2023.3월 주남아공대사관은 현지 법인설립 절차 및 BBBEE 준수요건 등을 공유하고, 특히 BBBEE 준수 관련하여 여러 차례 면 담을 통해 법률 자문 제공 및 현지 로펌과 회계법인의 의견서 검토를 통해 의견 제시
- 2023.4월 주남아공대사는 남아공 광물자원에너지부 고위공무원 과 A사 면담 주선을 통해 우리 기업 장점 강조
- 2023.5-6월 A사가 남아공 현지 로펌을 통해 현지 법인을 설립 하고 BBBEE 정책 준수 조치 지원
- 2023.9월 A사가 8월 발전소 정비 사업을 최종 수주한 이후, 3 개월 미만 체류 파견 엔지니어들의 단기 비자 문제 조력

4. 공관 조치 결과

■ **2023.8월** A사는 남아공 전력공사의 16개 화력 발전소 정비 사업 수주(수주액 총 850억 원)

- A사는 현지법인 설립 및 BBBEE 요건 준수 이후 남아공 전력 공사로부터 가장 큰 규모로 수주하였고, 정비기간도 1년에서 3 년으로 연장
 - ※ 2020년 177억 원, 2021년 228억 원 수주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남아공 정부는 1994년 민주정부 수립 이전 인종차별정책 (apartheid)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던 흑인, 인도인, 혼혈인 등과 백인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포괄적 흑인경제 육성법(BBBEE : Broad- 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남아공 내 사업 특히 공공입찰 참여 시BBBEE 내용 숙지 및 준수가 필요
- A사는 BBBEE 적용의 예외적 경우로 남아공 전력시장에 선진출 후 2-3년 유예 기간을 두고 BBBEE를 준수하였는바, 독보적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남아공 시장 진출 시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흑인경제육성정책과 관련하여 선진출, 후준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도미니카공화국 배전변전소 건설사업 수주 지원

1 사례 개요

- 2023.2월 주도미니카대사관은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에서 발주하는 3천8백2십만 불 규모 배전변전소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우리 공기업 A사를 측면 지원하여 해당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 2023.12월 우리 공기업 A사는 주재국 남부 Grantinos 지역 4 천8백만 불 규모 배전변전소 건설사업 입찰에 추가로 참가하였 으며, 주도미니카대사관 측면 지원 중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2/12월 주도미니카대사관은 우리 공기업 A사의 사업 수행 능력과 과거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문서 작성 및 제공
- 연중 주도미니카대사관은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장관 면 담, 프랑스대사관 주재 에너지 포럼 참석 등 도미니카공화국 고 위급 인사 접촉 계기 우리 공기업의 그간 사업 성과 및 우수한 전력 관련 건설 능력 소개

3. 공관 조치 결과

■ 2023.8월 A사, 주재국 배전변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 체결 완료

- 그간 A사는 주도미니카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도미니카공 화국에서 누적 규모 약 1.7억 불의 배전망개선사업 수주에 성공 한바,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관심 사업인 동 분야에서 우리 기 업의 기술력 및 신인도가 인정받은 성과
-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의 중국 수교(2018.5월) 이후 동 분야 중국 기업들의 참여 및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공기업과 주도미니카대사관이 합심하여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음.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공관 지원을 통한 전동차 공급 정부조달 사업 수주 성사

1 사례 개요

- LA 지하철 전동차 공급사업 입찰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 A사는 LA시 지하철 전동차 공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주로스앤젤레스총 영사관의 측면 지원을 요청, 이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경제 담당 영사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사 측이 최종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 * 사업 규모 : 약 6억 달러, 2026 북중미 월드컵 및 2028 LA 올림픽 수요 대응 증차 물량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9월 A사 측은 2023.11월 LA 전동차 공급사업의 낙찰자 선정까지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입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관계 인사들과 접촉해 줄 것을 요청
 - 과거 2016년 LA시 지하철 사업 참여시에는 중국이 저가 공세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재는 미·중 갈등으로 중국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A사 측은 현실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경제영사들은 A사 측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한 후, LA시장, LA시의원, 한인 커미셔너 협회장 및 LA시 경제국 인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사의 지하철 전동차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주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1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조치 결과 지난 11.9(목) A사 측은 LA 측으로부터 낙찰자통지의향서를 전달받았으며, 11.13(월) LA에 출장중인 A사 측 관계자들은 주로스앤젤레스총 영사관을 방문하여 경제 영사들을 면담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협의
- 향후 A사 측은 LA지역에 지사 및 조립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법인/공장 설립 및 주요 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에 있어 지원을 지속할 예정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평소 관할지역 주요 기관 및 주요 인사들과 확보해 놓은 네트워 크를 통해 금번 수주를 지원할 수 있었는바, 향후에도 지속해서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임.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우리 기업의 美 지역 바이오·의료분야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활동

1. 사례 개요

■ 미국 및 캘리포니아 지역의 바이오·의료 분야 진출 희망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시장 동향, 규정,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세미나 개최

2. 기업의 대응조치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한국 기업의 참석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미국 및 캘리포니아 지역의바이오 테크, 제약, 디지털 헬스, 원격진료 분야에 최신 정보와동향을 소개한 것에 대해 한국 소재 기업의 질문과 참여 활발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4.18. 미 서부 진출 한인 바이오텍 및 생명 기업 대상 세 미나 개최 (온-오프라인)
 -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및 생명공학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실험실을 소개하고 실험실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설명 (참석자 : 총 93명 / 현장 참석: 32명, 온라인 참석: 61명)

- 2023.7.27. 미 서부 진출 한인 바이오텍 및 생명 기업 대상 웨비나 (인공지능의 헬스케어 분야 적용) 개최
 - 한국 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기술의 헬스 케어 적용에 대한 최신 투자 동향, FDA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의 사 례를 공유(참석자 : 총 83명)
- 2023.12.7. "생명공학 기업들이 미국에서 투자받는 방법(투자자 관점)"에 대한 웨비나 개최
 -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5명의 벤처기업 투자가(VC: Venture Capital)를 초청해서 패널 형식으로 진행. 최근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한국 내 경기둔화로 인해서 바이오산업의 투자환경이 많이 악화된바, 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받기 위한 전략을 논의

4. 공관 조치 결과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세미나 동영상 녹화 자료를 공관 유튜 브 채널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2022년 최초 시행한 웨비나를 2023년도에 지속 시행함으로써 세미나 참석자 증가 유도 및 홍보 효과 측면에서 더 큰 효과 거양

- 한미생명과학인협회(KAPAL: Korean-American Professional Association in Life Sciences)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연구원과의 협업 사업을 추진한 첫해(2022년)에는 준비 일정 및 참석 홍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3년부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성과를 거양한 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
- 2023.4.26.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오 분야는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 나갈 유망한 분야로 정상 선언문에 명시되었으며 윤석을 대통령은 바이오 · 헬스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수차례 발언해온 바, 바이오 · 헬스 분야 한미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

밀라노총영사관

푸른 꽃게 수입 관련 우리 기업 지원

1. 사례 개요

■ 2023.9월 이탈리아 내에서는 유해 종으로 지정되어 폐기를 목적으로 포획하고 있는 푸른 꽃게와 관련, 푸른 꽃게를 수출하는 현지업체 현황을 요청하는 우리 기업의 민원을 접수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12.13. 우리 기업 K사는 현지 꽃게 수출업체 B사의 협력 업체 T사(가공 및 급랭) 꽃게 가공설비를 현지 실사
- 2023.12.20. 우리 기업 K사는 현지 어민 조합의 꽃게 포획 현 장을 실사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10월 주밀라노총영사는 △베네치아 상업부시장(9.18,), △베네토 어업부지사(9.21), △베네치아 상업부시장, 베네치아 수 산시장회장, 현지업체 F사 대표(10.6), △에밀리아-로마냐주 어 업부지사(10.10) 등을 잇따라 면담, 한국 기업의 요청 사항(수출 조건 등)을 전달하고 한국에 수출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 관련 정보를 요청

- 2023.9월 현지 업체 B사에게, 한국으로의 수출 절차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 허가 및 한-FTA 인증수출자 자격 등을 미리취득해 놓을 것을 안내
- 2023.12.18. 현지 실사를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K사 담당자를 면담하여 푸른 꽃게 수입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청취하였으며, K사는 수출이 본격화될 때 행정 절차 등의 공관 조력을 요청하겠다고 언급

4. 공관 조치 결과

- 2023.9월 베네치아시, 베네토 주정부,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 등이 제공한 푸른 꽃게 관련 지역 수출업체 목록과 현지 업체 B 사가 제공한 가격표를 우리 기업에게 전달
- 2023.12월 베네치아시, 베네토 주정부, 에밀리아-로마냐 주정부 등이 제공한 푸른 꽃게 관련 지역 수출업체 목록 및 현지 업체 B사가 제공한 가격표를 우리 기업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푸른 꽃게 수입이 가능토록 지원(일부 한국 업체는 이미 수입 시작)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푸른 꽃게의 정확한 어획량 산출 및 예측이 쉽지 않고, 급랭 시설 등 필요한 인프라 및 수출 물량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양측 업체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사우디대사관

사우디 투자부 협약을 통한 중소벤처기업공단 GBC 개소 및 초기 진출 추진 기업 사무실 무상 제공

1. 사례 개요

-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1월 사우디 투자부에 우리 중소기 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GBC(Global Business Center) 개 소에 대한 협조를 요청
 - 사우디 투자부는 ① GBC의 사우디 현지 인가 및 등록, ② GBC 사무소장 체류 허가, ③ GBC 및 20여 개 우리 중소기업 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1년간 무상 대여
 -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3.10월 GBC 리야드사무소를 개소
- 상기 관련,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투자부와의 유기적 협력 및 교섭을 통해 전체 과정을 지원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 간 협약을 통해, 우리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GBC 리야드 사무소장을 임명, 사우디 투자부에 파견하였으며 사우디 투자부의 지원을 받아 GBC 리야드 사무소 개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3월 주사우디대사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사우디 방문을 지원하였으며,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도 접촉하여 GBC 개소 관련 협의를 진행
- 2023.6월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우디 방문 및 사우디 투자부 장관 면담을 주선하여, GBC 현판식 개최를 지원
- 2023.10월 주사우디대사관은 사우디 투자부와 협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기업가 투자 허가* 권한을 부여하여 벤처· 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 시 부담을 경감
 - * 기업가 투자 허가(Entrepreneur License): 사우디 투자부가 기술력이 있는 벤처·스타트업의 자국 유치를 위해 신규 도입한 투자 허가로 등록·갱신 비용이 일반 투자 허가의 약 20% 이하 수준

4. 공관 조치 결과

- 2023.6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 간 GBC 리야 드사무소 설립 및 스타트업 육성 협력에 관한 Framework Cooperation Program 서명
 -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GBC 리야드사무소장 파견
 - 이후 현판식 개최
- **2023.10월** GBC 리야드사무소 개소 및 우리 중소기업 20개 업체가 입주함.
 - 사우디 측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해 독립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 주사우디대사관은 현지 시장정보, 법률·세무·노무 등 자문 서비 스를 지원

- 주사우디대사관은 주재국, 사우디의 Vision 2030 계획에 따라 △탈석유화, △제조업 및 중소기업 진흥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GBC 개소를 제안하고 사우디 투자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조기에 GBC 개소 및 우리 중소 기업 입주를 지원
- 주사우디대사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 이사장 사우디 방문 시 사우디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주선하면서 사우디 측과 지속 협력하여 GBC 리야드 사무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 특히 △사우디 투자부에 GBC 개소 및 사무실 분할 등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사우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여 국내 벤처스타트업에게 기업가 투자 허가 등의 혜택을 부여, △지속적인 면담과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한 것이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으로 평가

세르비아대사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분야 진출 지원

1. 사례 개요

■ 2023.10월 세르비아 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약 1,300MW 규모의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우리 기업 A 사는 B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2023.7월 세르비아 정부의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2023.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7월 A사 입찰 참여
- 2023.10월 A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초도 진출국 조사, 주재국 정부와 가격 협상 등 진행 예정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4월 주재국 주요 인사와 면담 등을 통해 ▲사업 파트너사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에너지법 개정 계획 및 주요 내용 ▲향 후 입찰 추진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 기업 에 대한 관심 요청

- 2023.9월 당지 주재 여타 국가 공관장들과 A사·B사 컨소시엄의 입찰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작성, 주재국 최고위급인사들에 전달
- 2023.10월 A사 등의 요청에 따라 주재국 주요 인사를 재차 면 담, 입찰 기업들에 대한 검토 마감 기한 및 최종 결과 발표 예정 일 등을 문의하고 우리 기업과 정보 공유

4. 공관 조치 결과

- 2023.4월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 능력 확보 의무화(200MW 용량의 대규모 에너지 저장시설 구축 능력 평가) 기준 등 사업자 선정 관련 세르비아 정부의 주요 관심사 파악, 우리 기업과 공유
- 2023.10월 주재국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A사·B사 컨소시엄을 태양광 발전 사업 최우수 입찰자로 채택한 입찰 검토 워킹그룹의 결정을 확정,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

- 당관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관련 주재국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당지 주재 주요국 공관장들과 공동지지 서 한을 작성, 전달한 당관 활동이 우리 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 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세르비아 내 기업환경은 법과 절차를 통한 공식적인 업무 추진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 등 비제도적 채널 활용도 직간접적으로 유리 하게 작용하는 것이 현실인바, 당관은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 중임.

카자흐스탄대사관

코스타나이 A사 조립공장 건설 지원

1. 사례 개요

- 2022년부터 A사는 성장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시장의 선점을 위해 현지 투자를 통한 자동차 생산 조립공장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함.
- 2022년 하반기부터 A사는 카자흐스탄 기업과 투자 협력을 통해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코스타나이 지역에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주카자흐스탄대사관에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요청함.
 - * A사 1억 달러와 현지 기업(기관)이 1억 달러를 투자해 총 2억 달러로 카자 흐스탄 현지에 합작법인(J/V)을 설립해 운영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현지법인 설립, 자동차 공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카자흐스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과 지속 협의함.
 - * 자동차 조립을 위한 주요 공장 시설은 내년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 - 현지 공장에서 A사의 다양한 모델을 생산할 계획

3. 공관 지원 조치 사항

- A사의 카자흐스탄 현지 협력사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발급 등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과 7월,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면담 등을 통해 코스타나이 지역에서 추진-진행되고 있는 A사 차량 조립공장 건설에 대한 카자흐스탄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함.
- 2023.8월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2023 코스타나이 투자포럼 개최 시, A기업과 함께 코스타나이 주지사 면담을 통해 A사의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에 대한 지원, 향후 기업이 당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인 자동차 조립 전문인력의 확보 등에 대해 코스타나이 주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2023.11월 주카자흐스탄 대사는 A사의 자동차 조립공장 착공식 개최 시, 현장 방문을 통해 건설 부지를 둘러보고, 축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가 양국 자동차 분야 대표 협력 사례임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카자흐스탄 중앙-지방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함.

4. 공관 조치 결과

- A사와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함.
- A사의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인들의 한국기업과 차량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등이 높아 현재 카자흐스탄 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한국 차량 브랜드 비중이 약 40%로 1위를 기록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내 합작법인 설립과 향후 자동차 조립공장 완공 등을 통해 A사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 25년 하반기부터 약 7만 대 규모의 자동차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자동차 조립공장 건설은 카자흐스탄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 기술을 보유한 신규 일자리를 창 출하고, 나아가 한-카자흐스탄 양국 간 교역 확대 등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케냐대사관

한국 식품 홍보 행사 개최를 통한 케냐 내 우리 식품 기업 수출 제고 모색

1. 사례 개요

■ 2023.10월 주재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 분야 우리 기업의 케냐 진출을 지원하는 한국 식품류 홍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3-9월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협업하에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식품 기업들을 접촉하여, 10월 한국 식품 홍보 행사 참가 기업 모집 및 행사 기획
- 2023.10월 우리 기업과 케냐 내 유통 기업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개최(10.12.)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식품 분야 우리 기업 및 케냐 내 구매 기업과 개인을 초청하는 △ 한국 식품 홍보 행사 개최(10.13.)를 통해 한국 식품을 홍보하고, △ 우리 기업-케냐 구매 기업 간 매칭 지원

3. 공관 조치 결과

- 케냐 내 유통사 및 구매기업,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판촉 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식품을 알리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 당초 250명 규모의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사전 홍보 효과 등으로 700여 명 이상 인파가 모이는 등 성황리에 행사 완료

- 금번 행사 기획을 통하여 그간 개인 유통 물류망을 통해서만 소 규모로 진출해 왔던 우리 식품 기업의 케냐 내 판로 개척을 모 색하고, 확장하는 기회 마련
 - 행사 참여 우리 기업들은 주재국 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대면 행사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주재국 진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행사 전후 우리 기업과 주재 국 유통사, 구매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제 수출 제 고로까지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중임.

키르기즈공화국대사관

한-키르기즈 비즈니스 포럼 개최

1 사례 개요

■ 2023.12월 주키르기즈대사관은 비슈케크에서 한-키르기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1-12월 KOTRA 알마티 무역관(키르기즈 관할)을 포함한 CIS 지역 주재 무역관과 협업하여, CIS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키르기즈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섭외함.
- 2023.11-12월 참석이 확정된 우리 기업(총 10개 사)을 대상으로 사전에 매칭 희망 기업 또는 분야를 조사하여 그에 맞는 키르기즈 기업을 섭외, 1:1 매칭을 주선함.
 - 또한, 주재국 정부 부처와 면담을 희망한 일부 기업에 대해 면 담 주선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함.
- 2023.11-12월 키르기즈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제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들을 섭외함.
 - ※ (발제 주제) ▲ CIS 비즈니스 환경, ▲ 키르기즈 경제 동향 및 전망, ▲ 키르기즈 투자 환경 및 유망분야, ▲ 키르기즈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정보, ▲ 키르기즈 기업 참여형 ODA 사업

3.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비즈니스 포럼에 한-키르기즈 양국 정부·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측에 CIS 지역 내에서 새로운 기회 를 모색·발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특히 1:1 매칭 상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 1개 사 당 평균 4.1 건의 1:1 면담이 성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및 향 후 협력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됨.

- 일부 키르기즈 기업은 1:1 매칭이 계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과의 면담을 희망한다며 행사장을 방문, 즉석 면담이 성사되는 등 우리 측과의 협력에 대한 키르기즈 측의 열의를확인할 수 있었음.
- ▲최근 우리 기업의 키르기즈 진출 본격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리의 對 키르기즈 수출 규모 대폭 증가(323.3%, '23.1~9월 / CIS 내 증가율 1위), ▲ODA 중점협력국 선정('21)에 따른 우리기업의 ODA 참여 가능성 확대 등 키르기즈 및 CIS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
- 앞으로도 주키르기즈대사관은 현지 우리 경제인단체와의 긴밀한 소통 하에, 키르기즈의 무역·투자 잠재력을 홍보하고, 세무 설명 회, 기업법률 지원활동 등을 통해 키르기즈 진출 (희망) 우리 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임.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우리 기업 최초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박 건조 계약 체결

1. 사례 개요

■ 2023.9월 우리 기업 A사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발칸조선소가 발주한 6,100톤급 화물 운반선 2척에 대한 설계·공동 건조·기자 재 패키지 공급 등에 대해(4,100만 불 규모) 한국 기업 최초로 계약을 체결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5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KOMEA) 관계자 투르크 메니스탄 출장
 - 2023.5.3.-5.4, 아시가바트에서 개최된 "2023 국제 운송 회랑 포럼"에 한국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러시아 지사장이 참가
 - *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러시아 지사장은 '2023 한-투르크메니스탄 조선산업 협력 전략' 발표 및 발칸조선소 관계자 등과 네트워크 형성
- 2023.6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및 A사 관계자는 투르 크메니스탄을 방문하여 A사와 발칸조선소 간 계약 논의(1차)
 - * 투르크메니스탄 해양하상운송청 및 발칸조선소와 면담
 - * 6,100톤급 화물 운반선 공동 설계 및 건조 논의 (상세 제안서 요청 및 입수)

- * 조선소 생산설비 시험 운전에 대한 협력 요청 및 입수
- 2023.7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및 A사 관계자의 투르 크메니스탄 방문 및 A사와 발칸조선소 간 계약 논의(제2차)
 - * 해양하상운송청장 및 발칸조선소장과 상세 업무 일정 협의
 - * 6,100톤급 화물 운반선 2척에 대한 상세 제안서 제출
 - * 기자재 공급 목록, 선박 건조 일정, 한국 전문가 파견 일정 등 제공
- 2023.9월 A사와 발칸조선소 간 계약 체결
 - * A사 회장단 및 KOMEA 러시아 지사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 * 회물 운반선 2척 설계, 공동 건조, 기자재 공급에 대한 계약 서명식 진행
 - * 선박 건조를 위한 일정 협의
 - * 조선소 생산 현장 실사 진행
 - * 수리 협력을 위한 벌크선 실사 진행
 - * 추가 건조 예정인 철도차량 운반선 2척에 대해 견적 요청 접수
- 2023.10월 한국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및 A사 관계자 투르크 메니스탄 방문: 계약 후속 조치 등
 - * A사, 선수금 입수를 위한 서류 제출
 - * 6,100톤급 화물 운반선 건조를 위한 작업표준서 공유 및 투르크어 번역 착수

(발칸조선소 인력의 교육교재로 활용 예정)

- * 조선소 생산설비 현황 파악을 위한 공정별 한국 전문가 7명 파견
- * 철도차량 운반선 2척 및 화물 운반선 추가 1척 건조 사업에 대한 대통령 재가 완료
- * 발칸조선소 인력의 생산교육을 위한 한국 전문가 4명 방문
- * 6,100톤급 화물 운반선 건조 착수 전 생산설비 재점검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5월 '2023 투르크메니스탄 국제 운송포럼'참가 지원, 투 르크메니스탄의 최근 조선산업 동향과 중점 추진 협력사업 및 외 국계 기업 진출 현황 등 주재국 국내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투르크메니스탄 발칸조선소 관계자와의 면담 주선 등 수주 활동 지원
- 2023.7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외국 기업 간 계약 절차, 계약 시주의 사항 및 대금결제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주재국의 계약 관행 등에 대한 자문 시행
- 2023.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각종 수주 및 경제 관련 전반적인 사항 자문 및 A사 관계자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지원
- 2023.10월 A사의 선박 건조 계약 관련 서류 주재국 재경경제 부 등록 지원, 우리 기업과 발칸조선소간 계약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및 계약 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 방지 위한 서류작성 관 련 규정 안내 등
- 아울러, 2023.10월 한국에서 개최된 '2023 부산 Global network 국제 B2B 행사'에 참여하는 투르크메니스탄 발칸조선소 대표단 의 긴급 비자 발급 지원 등 양국 간 조선 협력 지원

4. 공관 조치 결과

■ 2023.5월 조선 분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인사 면담 지원 및 발칸조선소장 포함 조선 관계자에게 한국의 우수한 선박 건조 기술 등 적극 홍보로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지원

- 2023.9월 '2023 국제 운송 회랑 포럼('23.5월)'에 참가 후 최 단 기간인 23.9월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리 기업 최초로 선 박 건조 계약 체결
 - ※ 계약된 화물 운반선(2척) 건조를 위해 국내 기술 인력이 발칸(州) 소재 발 칸 조선소에 상주 및 현지 인력과 공동으로 작업 진행

-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선박 건조 수주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금번 수주(계약)을 통해 우리 조선기업들의 카스피해인근 중앙아 국가에서의 추가 선박 수주 기반 마련
 - * 투르크메니스탄은 향후 14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 있으며, 인접 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스피해 선단 건조 계획·카자흐스탄 유조선 건조 계획 이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활로 창출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수한 한국의 조선산업 기술 시현으로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기반 마련

파나마대사관

파나마 운하 하저터널 공사 수주 지원

1 사례 개요

■ 파나마 메트로공사는 메트로 3호선의 파나마 운하 지역 통과 방 안으로 애초 교량 형식을 계획하였으나, 이후 하저터널 형식으로 변경하여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으며, 이에 우리 기업 B사가 수주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파나마대사관은 발주 주관기관인 주재국 공공사업부 장관, 메 트로공사 사장 및 사업 감사 총괄기관인 감사원장 등 유관 고위 인사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기술적 우월성, 유 사 프로젝트 시공 경험, 공사 기간 준수 관행, 사후관리 등 우리 측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

3. 공관 조치 결과

■ 2023.12월 주재국 정부는 우리 기업 B사를 운하 하저터널(메 트로 3호선 하저구간)의 시공사로 결정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당관이 접촉한 주재국 인프라 관련 고위인사 및 발주처 주요 의사결정자들은 고급 건설 기술 보유 여부, 공기 준수, 시공 경험, 기술이전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간 우리 기업이 △콜론 LNG 복합화력발전소('18.8월 완공), △콜론 LNG 터미널 ('19.10월 완공), △메트로 3호선('21.2월 착공) 등 주재국 내 시공 과정에서 보여준 우수한 역량과 신뢰도(공기 준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관찰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IV

해외 취업·창업 지원 사례



뉴질랜드대사관

주요 도시 취업박람회 및 멘토링 행사 개최

1. 사례 개요

■ 주뉴질랜드대사관은 2023년 「재외공관 기업지원 활동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한인 기업 구인난 해소 및 한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뉴질랜드 주요 도시(오클랜드, 웰링턴)에서 직업 박람회 및 취업 멘토링 행사 개최

2. 공관 지원 조치 사항

- 2023.7.27.(오클랜드) ▲우리 기업인-구직자 간 1:1 상담, ▲입사 서류 작성 및 면접 요령, ▲뉴질랜드 고용법 및 비자 법률 등에 관한 상담 등을 통한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
- 2023.10.19.(웰링턴) ▲현직 법률, 교육, HR 분야 종사자 초빙을 통해 ▲뉴질랜드 고용법, ▲현지 취업 전략,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기술 등에 대한 강의 제공

3. 공관 조치 결과

- **2023.7.27.(오클랜드)** 현지 지상사 22개사와 80여명의 구직자가 참석하여 총 69건 면접을 진행하고, 11건의 근로계약 성사
- 2022.10.19.(웰링턴) 40여 명의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지 취업 전략을 소개하고, 취업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 및 시행착 오에 대한 경험담 공유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주뉴질랜드대사관은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와 더불어 행정수도인 웰링턴에서 취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청년 들의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함.

라오스대사관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 대상 우리 기업 취업 박람회 개최

1. 사례 개요

■ 2023.11.30. 주라오스대사관은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 8개사와의 취업 매칭 지원

2. 기업의 대응조치

- 라오스는 2023년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평균 30%를 돌파하는 등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음에 따라 실질임금이 주변국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2023년 4만 명이 넘는 라오스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태국 등 주변국으로 이동하여 라오스 진출 우리 기업들의 인력난 가중 유발
- 우리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각종 취업박람회에 참가비를 지불하며 참여하거나 개별적으로 인력 지원 업체에 연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였으며, 특히 인력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의 필요성 절감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주라오스대사관은 2023.2월 및 6월 라오스 진출 우리 기업을 대 상으로 제1, 2차 수출·수주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시 다수의 기 업으로부터 인력난 문제 관련 애로사항 접수
- 2023.9월 인력난 문제를 비롯한 라오스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한 후 라오스 외교부와 경제 담당 부처에 애로사항 해소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송부하였으나, 라오스 정부로서도 인력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 확인
- 2023.9-10월 주라오스대사관 담당 서기관이 인력난을 호소한 기업들을 방문하며 현황을 청취한 결과, 장기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필요성 확인
- 2023.10월 우리 기업 및 라오스 주재 KOTRA 비엔티안무역관과 논의하여, 11월 라오스국립대학교에서 한국문화 홍보 행사인 '한국 알리기의 날'행사 개최 시 한국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23.11월 취업박람회 관련 세부 사항 확정 후 제3차 수출·수 주 기업지원협의회 개최 시 우리 기업인들에게 취업박람회 진행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라오스 진출 우리 기업 8개사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 200여 명 간 매칭 지원

4. 공관 조치 결과

- 취업박람회 개최 시기인 11월은 라오스국립대학교 학기가 개시 되는 시기로, 라오스국립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들은 라오스 진출 한국 기업의 종류, 주요 업무 및 취업 방법 등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신입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인 한국어 를 졸업 후 활용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알 수 있게 됨으로써 한국어과에 대한 자부심 고취
- 취업박람회 참여 우리 기업들도 다수의 한국어학과 재학생들이 기업 내 인턴십 과정 및 취업을 위한 준비 사항을 문의하는 등 취업에 관심을 보였다며 주라오스대사관에 사의 표명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라오스와 주변국 간 실질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한 라오스 내 인력난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유사한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며 우리 기업 지원 필요

바르셀로나총영사관

우리 한인 청년 대상 취업지원워크숍 개최

1. 사례 개요

■ 2023.9월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현지 취업을 원하고는 있지 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비자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올바른 이력서 작성법, 면접 노하우, 일자리 정보 검색법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지원 워크숍을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원(Barcelona Activa)과 협업하여 개최함.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7월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원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 올바른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코자 한다는 취업지원워크숍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원 측의 협조를 구함.
 - 우리 한인 청년들의 현지 취업은 취업 비자 취득과도 연관이 되어 현지 취업 전문 변호사도 연사로 섭외하였으며, 카탈루냐 중앙정부 대표부 측에도 실제 취업 비자 심사 담당자 추천을 요청하여 바르셀로나 외국인청 사무소장도 연사로 섭외함.

- 또한, 현지 취업 경험담을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 공유해주기 위해 현지 취업 중이거나 취업 경험이 있는 한인 선배 인사도 섭외함.

3. 공관 조치 결과

- 2023.9월 주바르셀로나총영사관은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원과 협업하여 우리 한인 청년 대상 취업지원워크숍을 바르셀로나대학교 강의실에서 개최함.
 - 현지 취업 전문 변호사는 현재 스페인이 외국인 인재를 어떤 방식으로 유치·영입하고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들과 학생 들이 학업 종료 이후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방법들을 소 개하고, △Professional Internship Visa, △Intracompany Transfer Visa, △Digital Nomad Visa 등 구체적 비자 유형 과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 바르셀로나 지역개발원의 교육담당관은 참석자들에게 △취업 전략, △이력서 작성법, △개인 브랜딩(Branding) 전략, △면접 노하우, △일자리 정보 검색 방법, △개별 코칭 등 도시개발원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상담, 자원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함.
- 동 취업지원워크숍에는 현지 취업을 원하는 16명의 한인 청년이 참가하였으며, 참석자 대다수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취업 정보 들을 얻게 되었다며 이번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금번 행사는 우리 청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취업 관련 공공 기관 담당자, 전문 변호사, 취업 비자 심사 담당자 등 현지 전문 가들을 섭외하여 취업에 관한 전문적 정보·가이드·노하우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행사 영상은 총영사관 소셜미디어(유튜브) 채널에 게재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중남미 등 해외에서 스페인(바르셀로나)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한인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조치함.

시드니총영사관

우리 청년 해외 취업 및 호주 내 우리 기업 우수 인재 채용 지원

1. 사례 개요

- 2023.8월 호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현장 채용 면접 등을 통해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 및 호주 진출 우리 기업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
- 취업박람회와 연계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호주 취업에 관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호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홍보하는 데 활용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8월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시드니무역관과 협업하여 호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현장 채용 면접, △취업 상담 등을 실 시하여 우리 기업 구직 및 우리 청년 구인을 적극 지원
 - 채용 면접에는 총 106명 지원하였고 1차 서류에 합격한 58명을 대상으로 총 115건의 현장 채용 면접을 실시
 - ※ 호주 진출 지상사, 동포 기업 등 총 27개사 참여

-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해외취업 동기부여, △호주 취업 준비 노하우, △기업 필요 인재상 등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
 -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구직 홍보 지원
 - ※ 동영상 제목은 "출근 in sydney"며, 매년 개최되는 취업박람회와 연계 하여 시리즈물로 제작할 계획

- 2023년의 경우,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채용 매칭, 인재 관리 등 구직자 58명 취업 성사 및 구인처 31개사 인재 채용 지원
- 해외 취업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관 자체 홍보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 관련 국내외 기관들과 협조하여 다양한 채널로 홍보
 -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SNS(Youtube, Facebook, Instagram), △우리 기업 A사 SNS, △시드니무역관 SNS,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해외 취업 관련 카드 뉴스, 호주 지역 취업 희망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해당 동영상 홍보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코로나 19 이후 우리 청년의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호주 내 중장기 취업이 가능한 유학생, 졸업생 등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우수 한인 채용을 희망하는 호주 진출 우리 기업의 구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
 - 이에 우리 총영사관은 취업박람회 등 현지 채용 행사를 확대하여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은 우리 청년과 우수한 한인 인재 채

용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인-구직 의 장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 아울러 우리 공관 단일 행사로 진행하지 않고, KOTRA 및 산업 인력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유학생 및 기업들의 수요사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수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아울러 포스터,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총영사관의 취 업박람회 행사에 대한 홍보와 소통을 강화
- 호주 취업박람회와 연계한 취업 성공자(해당 기업 포함)를 대상 으로 홍보 동영상을 매년 제작하여 호주 취업에 대한 알찬 정보 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구직 홍보 동시에 지원해 나갈 예정



- 좌) 2023년 호주 취업박람회 홍보 포스터
- 우) 해외 취업 홍보 동영상_Short 버전(13초)

시애틀총영사관

IT분야 대학생 대상 취업 멘토링 설명회(Career Mentoring) 개최 (2023.11.11.)

1. 사례 개요

- 시애틀은 보잉, 아마존, MS, Expedia 등 미국 내 유망 IT 및 첨단 기업의 본사가 소재하는 곳이며, 미국 내 STEM으로 유명한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 한국계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
- 이에 우리 대사관은 현지 유학생, 취업준비생과 우리 교민에게 현지 IT기업 해외 취업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킹 형성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설명회 및 멘토링 워크숍 개최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1.11. (멘토링 행사) 시애틀 내 IT 기업 종사자 모임인 '창발(Changbal)*' 네트워크와 협업, 역량 개발 및 진로 상담을 위한 멘토링 행사 진행함.
 - * 창발은 2014년 서북미 지역에서 설립된 IT 및 창업 기반 회원단체로,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창발 테크 서밋과 멘토링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 중

- - 행사에서는 다양한 IT기업(MS, Amazon, Best Buy, Google, NVIDIA)에서 재직 중인 다양한 직군(인사팀, 소프트웨어 개발 자, 테크니컬 매니저, 알고리즘 개발자)의 현직자들이 참여
 - 현직자들이 IT 산업 트렌드와 각 기업 분위기, 기업 내 부서 전환과 이직, 승진 방법 등 성공적인 커리어 관리에 대해 자신 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 공유하여, 우리 청년들의 현지 취 업 및 창업 의식 고취

- 이번 행사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하고 시애틀 등 미국 내 IT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최근 미국 시장 내 IT업계 침체로 구직이 어려워진 시점에 진행된 이벤트로 큰 호응 속에 개최
 - MS, 보잉, 엔비디아, 아마존 등 현지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포함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
 - 시애틀과 워싱턴 주 등 미국 내 IT업계 고용시장 관련 정보제공
 - MS 인사팀 직원을 멘토로 초청하여 IT 기업 구직자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이에 대해 참석자 대다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글로벌 대기업 취업 및 인턴 정보를 확보하면서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1:1 멘토링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동 행사를 긍정적으로 평가(설문 참여자 중 9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만족 응답)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공관은 IT 업계 내부적으로 조언을 주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기 행사가 한인 IT 전문가들과 유관 업종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직접 만나서 유명 기업의 취업 트렌드도 파악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
- 미국내 IT 기업이 전세계 IT를 선도하고 있으며, IT 기업에만 한 해 한국 유학생 및 한국인 취업자에게 H1B 취업 비자를 3년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미국 IT 기업의 현지 취업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공관은 향후 유사한 취업 및 창업지원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임.

시애틀총영사관

[창발 테크 서밋 개최](2023.10.23.)

1. 사례 개요

- 창발(Changbal)은 2014년 서북미 지역에서 설립된 IT 및 창업기반 회원단체로, 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창발 테크 서밋과 멘토링 행사를 연례적으로 개최 중
- 우리 대사관은 시애틀 내 IT 기업 종사자와 동 업계로의 구직 희망자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상기 창발(Changbal)과 협 업하여 '2023 Chagngbal Tech Summit'을 공동 개최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및 결과

- 23.10.21. 벨뷰 컬리지 Changbal과 협업하여 '2023 Chagngbal Tech Summit'을 공동 개최
 - ※ 행사 주요내용
 - A사 로봇연구소장, B대학 기계항공공학과 교수: "Do Robots Need to Look Like Human?"
 - C사 테크펀드 제너럴파트너 : "Al Trends to Watch: An Investor's Perspective"
 - DAF Managing Partner: "Science and Tech in Music and Entertainment"

- E사 CEO: "US Fundraising Strategy and Process for Startups & SMEs with IR guide of underlying venture cultures"
- F사 Co-founder/CIO: Ad tech 기업"F사 10년 여정의 기록"

3. 시사점 및 참고사항

- 로봇, AI, 스타트업 창업 및 투자 등 최신 트렌트 공유
 - 이번 행사에는 로봇 공학자, MS 내 AI 언어 모델 프로그래머, 스타트업 창업가 및 벤처투자자, 과학자와 교수 등 다양한 전 문가들이 로봇, AI(LLM), 게임업계, 엔터 및 음악업계 디지털 동향,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등을 발표하여, 과학기술 창업에 관심 있는 기술자와 예비 창업가에게 트렌트와 지식을 공유하 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
- 실제 스타트업 창업 경험과 운영 노하우 공유
 - 아울러 특히, 1조 원의 가치를 지니는 Ad-tech 기업 F사의 공 동 창업자가 10년간의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등 최근 1-2년간 창업한 CEO들 3명이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들, 힘들었던 순간들, 공동창업자 선택하는 법, 창업을 위한 위기관리, 창업 자본 확보 하는 법 등 노하우를 공유
 - 아울러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 담화 형식으로 진행되어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음.
- 현지 한인 스타트업 기업 및 종사자 네트워킹 강화 및 계기
 - 금번 행사를 주최한 창발은 당지 대표적인 과학기술 분야 차세 대 단체로,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과 재미과학기술자협회 시애틀 지부 등과 함께 '한인 스타트업

기업 협의회'등을 구성

- 우리 대사관은 창발 등 당지 소재 단체들과 지속 협력하여 역 량 있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 구직 등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

싱가포르대사관

해외 취업전략 세미나 및 멘토링 행사 개최

1. 사례 개요

-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테크(Tech), 무역, 금융 중심 지로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
 - 양질의 일자리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외국어와 전문 역량이 풍부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
 - 이와 관련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싱가포르 무역관과 함께 유망 분야(IT, 금융, 마케팅, 세일즈 등)의 취업 정보 및 취업 성공전략을 중점으로 한 한국인 현직자들의 멘토링 행사 를 개최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12.(화), 9.14(목)** 2회에 걸쳐 '싱가포르 주재 청년 대상 취업 멘토링 행사'를 진행
 - 동 행사에서 주요 직무별로 한국인 재직자를 멘토로 초빙하여 참석자 대상 ▲직무별 취업 동향 및 이슈 공유, ▲직무 중심 취업전략 질의응답 및 멘토링, ▲재직자-구직 청년 간 네트워 크 구축 기회를 제공

- 2023.10.12.(목) '싱가포르 취업전략 세미나'를 개최
 - 동 세미나에서는 주요 분야 한국인 재직자 5인을 초빙하여 참석자 대상 ▲우리 정부의 해외 취업 지원사업 소개, ▲취업전략 공유, ▲이력서 작성법 지도 등 유망 산업별 취업전략을 전수
 - 특히, 동 세미나의 혜택 범위를 넓히고자 온라인 송출(Zoom)을 실시하여 국내 체류 싱가포르 취업 희망 청년들의 세미나 참석 기회를 제공

- 참석자 대부분이 현지 대학 졸업예정자 및 교환학생으로 이루어 진바, ▲취업 유망분야 주요 직무 소개, ▲직무별 경험 및 경력, 자격 사항 소개,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방법 등 신입 취 업 준비 사항 위주로 멘토링을 실시
 - 특히, 관심 직무별 그룹 멘토링을 실시한 바, 참석자 개인별 실 전 활용 가능 취업 성공 전략을 전수한 것으로 평가
- 특히, 2023년말 기준 동 멘토링 행사 참석자 중 2인이 현지 취업에 성공하였고,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만족 이상 100%)를 보인바, 싱가포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사업이라고 평가

4.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이번 행사들은 K-MOVE 담당 기관인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의 연중 해외 취업 지원사업의 일부로 기획되었으며, 향후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효과를 지속해서 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KOTRA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 협의를 통해 싱가포르 취업 지원 활동의 개선점을 찾고, 더 많은 우리 인재들 이 싱가포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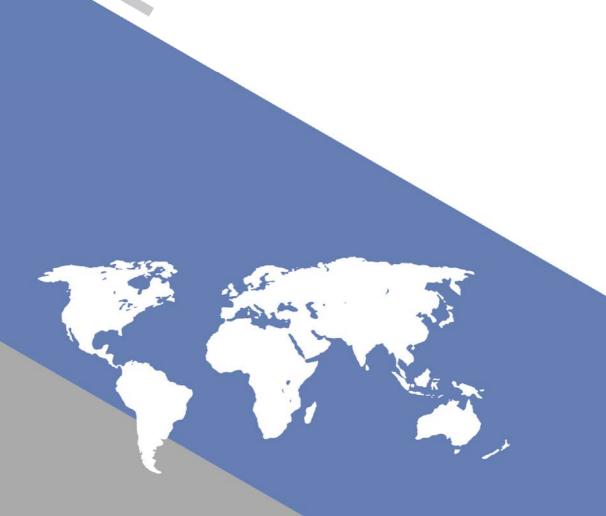






V

법률자문 서비스 주요 사례



멕시코대사관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지원

1 사례 개요

- 2023.8월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 A사는 원자재 수입 시, 수입 부가세의 납부를 유예 해주는 IMMEX*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여 애로를 겪음.
 - * 수출 서비스산업진흥 프로그램(El programa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ros de Exportación) : 수출용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자재의 임시수입을 허용하고 수입부가세 등의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8월 A사는 주멕시코대사관에 관련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8월 주멕시코대사관은 법률자문서비스를 연계하여 담당 변호사와 A사 간의 컨설팅을 주선함.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해 IMMEX의 충족 요건(수출비율),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전자영수증, 국세청 사전확인) 등을 상세하게 안내함.

■ 2023.8월 A사는 멕시코 경제부에 IMMEX를 통한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를 신청.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를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음.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IMMEX를 통한 세제 혜택은 수출 기업들에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기업의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정됨. 따라서 진출기 업들은 IMMEX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주멕시코대사관에서도 법률자문서비스를 지속 제 공하여 기업을 지원할 예정

이집트대사관

관세 및 부가세 환급 지원

1 사례 개요

■ 이집트에 생산공장을 구축한 우리 섬유 기업 E사는 원사를 수입하여 원단을 생산·수출 중으로, 현지 생산 물품의 수출 시 관세및 부가세를 환급받아야하나, 수입 원사의 중량보다 수출 원단의 중량이 손실되는 분량만큼의 관세및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2. 기업의 대응조치

■ E사는 수년간 이집트 관할기관의 생산공정에 대해 설명하고 환급을 받으려 노력했으나 환급받지 못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해 2022.6월 자문 로펌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E사는 2년 치 상당 관세 및 부가세 환급을 위한 소송을 제기

■ 2023.4월 이집트 재판부에서 E사에 2년 치 관세 및 부가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하였고, 2023.6월 당국으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음.

이집트대사관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협회 등록 지원

1 사례 개요

■ 이집트에서 건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 건설 협회 등록이 필수적인바,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 기업 F사는 현지 자재 조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이집트 건설협회 등 록이 필요

2. 기업의 대응조치

■ F사는 이집트 건설협회에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현지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증빙서류, 관행 등으로 등록에 어려움을 겪음.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해 2023.5월 자문 로펌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에 관련 절차와 노하우, 이집트 측 담당자 등을 안내

■ 동 기업은 법률자문서비스 상담 이후 3주 만에 건설협회 등록을 완료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 기반 마련

인도대사관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 간 자금거래 법률자문

1. 사례 개요

■ 2023.10월 A 기업의 한국 본사가 인도 자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장기미수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11월 자체 법률팀이 없는 A 기업 인도 자회사는 장기미수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인도 세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는지와 관련해 주인도대사관에 법률자문 요청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1월 주인도대사관 자문 변호사를 통해 한국 본사와 인도 자회사 간 자금거래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 및 전달

■ 2023.11월 자문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인도 자회사는 장기 매출채권이 중앙은행에서 규정한 모든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 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중앙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장기미수채권을 대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알리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세법적 검토 사항에 대해 안내함 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자체 법무·재무팀 등에서 법적의무 사항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인도의 법률·관세·조세제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공관 차원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지원 제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인도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

파나마대사관

주재국 노동 허가 법령 개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지원

1. 사례 개요

■ 당지에 진출하여 인프라 사업을 진행 중인 C사는 2023.3월 개정된 주재국의 외국인 대상 노동 허가 발급 관련 법령이 C사의 우리 국적자와 제3국 직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대사관에 문의(2023.3월 말)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이에 주파나마대사관은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당관이 계약 중인 주재국 로펌을 통해 상기 법령 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동 분석 결과를 C사에 공유
- 아울러 주파나마대사관은 주재국 노동부 차관(장관 대행)과 당관 공관장 간 면담(C사 담당자 배석)을 주선, 우리 기업이 수행 중 인 인프라 사업이 주재국 내 고용 안정 및 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개정된 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애로를 설명하는 한편 이의 해소 방안에 대해 문의

■ 상기 면담 계기 주재국 노동부는 신규 노동 허가 발급 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검토를 위해 먼저 C사에 파나마 국립 전문가은행 홈페이지에 원하는 프로필로 구인 공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적합한 프로필의 파나마 노동자 고용이 어려울 경우, 노동부 장관 앞 서한을 통해 C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외국인 고용 필요성과 고용 인원 규모 등을 알려올 시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예외 적용 방안을 제시한바, 당관은 C사의 예외 적용 방안 추진 과정상 여타 추가 애로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 중

호치민총영사관

투자법 상 자본금 관련 법률자문

1 사례 개요

- 우리 기업 C사는 베트남 진출 시 자본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해외송금 수수료가 결제되면서 납입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업장 주소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문제 발견함.
- C사는 동나이성 투자국에서 벌금 부과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고 통보받은 후 자본금 관련 투자법 조항에 대한 정보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호치민총영사관에 문의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5월 C사는 동나이성 투자국과 면담을 통해 자본금 부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벌금 부과의 정당성 등을 확인하는 등자구책을 강구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6월 C사 관련하여 투자법 상 자본금 부족 해결 방안, 벌금 관련 규정 등 대응 가능한 방안을 영사관의 법률자문을 통해 제공

- 은행 수수료에 대해 인지만 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납부 기한 만료일 30일 이내 자본금 을 감액하는 취지의 기업등록증 변경이 필요함을 확인
- 수수료에 해당하는 자본금 미납에 대해서는 IRC 등록 사항 미 이행에 따른 행정 벌금, 적기 변경 신청 하지 않는 데에 따른 행정 벌금이 부과됨을 확인
- C사에 기업법 조항에 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양형에 대해 서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속한 벌금 납 부 및 자본금 변경 처리가 해당 기업에 유리할 수 있음을 조언

■ 2023.6월 C사에 대해 기업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법률자문 결과를 제공하고, 실제로 벌금 납부 및 자본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진출기업의 투자등록증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금 납부 등에 대해서는 사후에 완납되었는지 필요하며 미준수 시 높은 수준의 행정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법률자문 지원을 통해 진출기업들에 관련 정보제공 등이 필요함.

2023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







VI

기타 지원 사례



밀라노총영사관

베네치아 보트 생산업체의 한국산 모터 수입 문의

1. 사례 개요

■ 2023.8.17. 베네치아 소재 V사(보트 생산업체) 는 현재 생산 중인 수상 택시 200여 대에 장착할 한국 A사의 아웃보드 모터를 구매하고 싶으나 한국 A사에서 회신이 없다며 공관에 도움을 요청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8월 우리 기업 A사는 회사명 변경 등 내부 사정으로 V사의 요청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
- 2023.10월 A사 담당자, 아직 아웃보드 모터가 개발 완성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
- 2023.11월 A사 담당자, 내부 사정상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을 V사에도 안내하였다고 설명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8월 우리 기업 A사를 접촉, 회사명 변경 등의 이유로 V 사의 요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V사의 아웃보 드 모터 수입 의사를 전달
- 2023.10월 우리 기업 A사를 재차 접촉, V사가 답변을 기다리 는 상황임을 안내하고 내부 검토 상황을 확인

4. 공관 조치 결과

■ 2024.1월 현재 두 회사가 직접 협상을 진행 중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양 기업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우리 기업의 아웃보드 모터 수출이 성사될 경우, 물품 통관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나갈 예정

벨기에대사관

세계관세기구(WCO) HS CODE 분쟁 지원

1. 사례 개요

- 무선통신기지국 구성품 중 하나인 RU(Radio Unit) 품목분류와 관련, 2023년 인도 관세청이 한국 관세청과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기업에 수천억의 관세 부과
- 한국 관세청은 동 사안을 세계관세기구(WCO) HS 위원회에 분쟁 사안으로 상정
- WCO HS 위원회는 HS 분쟁 사안을 회원국 표결로 최종 결정하는 기관으로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WCO 회원국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어 WCO 회원국에 영향력이 매우 큼.

2. 기업의 대응조치

- 한국 관세청과 기재부에 지원요청
- 기업에서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를 WCO에 파견, 프레젠테이션 진행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WCO가 벨기에에 위치한 것을 고려, 주벨기에대사관은 외교부에서 공문을 접수한 7월 28일 이후부터 9월 25일 HS 위원회 개최일까지 30여 개국 이상의 관세관 및 대표단을 접촉, 지지 교섭지행하고 19건의 동향 보고
- 기재부, 관세청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표결 현장에서 스위스, 미국, 영국 등의 반대에 맞서 우리의 논리를 펼치는 동시에 HS 위원회 의장에게 인도의 표결 지연작전에 대해 항의하고 신속한 표결 요구

4. 공관 조치 결과

■ 9월 25일 위원회 최종 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표결을 결정하고 표결 결과 28 대 13으로 한국 측 입장이 채택된바, 향후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현장에서 스위스, 인도 등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통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지속 접촉하여 우리의 입장과 명분을 설명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고 HS 위원회가 우리 입장을 채택하게 된바, 우리 기업 애로 해소에 있어서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줌.

수단대사관

무력 분쟁 정세 정보 공유 등 기업지원 강화

1. 사례 개요

- 2023.4.15. 수단의 양 군부인 수단군(SAF)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무력 분쟁 발발로 우리 기업을 포함한 전 교민 철수(4.24.)
 - 이후, 우리 기업은 △주수단대사관과 같이 이집트 카이로에 임 시사무실을 개소하거나, △여타 지사에 업무를 이관하여 활동
 - 우리 기업들은 무력 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전황(戰況) 등 정세 정보 부족으로 기업활동 결정 등에 애로가 컸던 상황

2. 기업의 대응조치

- 우리 대사관 임시사무소 개소를 위해 주수단대사관 직원들이 이 집트 카이로로 부임(5.30.)하자, 우리 현지 투자기업 A사와 KOTRA 카르툼 무역관도 카이로로 이전하였으며, 대사관 주재로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 운영 필요성 제기
 - 특히, A사는 동사 공장의 피폭 관련 정보나 이집트에서의 신규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며, 수단 전황 등 정보 공유의 유용성 강조
 - ※ 당시 수단 무력 분쟁은 군부 간의 시가전(市街戰)이라는 특성으로 국내 및 해외 매스컴의 보도가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양 측간 고도의 심리전 구 사로 전황 관련 정보의 신뢰도가 극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관측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7월 우리 대사관은 공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제2차 기업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전황, ▲경제 현황, ▲영사 공지사항(예외적 여권 사용 절차 등) 공유
 - 동 행사는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원거리에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총 12명 참가)
- 2023.11월 대사관 임시사무소 전용 사무실 개소 후「제3차 기업지원협의회」개최, ▲전황, ▲경제 현황, 및 ▲영사 공지사항(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유
 - 동 행사는 대면·비대면으로 개최 총 9명 참가(온라인 2명 포함)

4. 공관 조치 결과

- 우리 기업들은 대사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기업의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 협의회의 지속 개최를 희망
 - 아울러, 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단 무력 분쟁 관련 정보 를 23.6월 이후 지속 제공 중(24.1월 현재 총 218건 게재)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우리 대사관은 무력 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철수를 감행할수밖에 없었던 우리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 아울러 우리 공관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다만, 무력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여타 우리 기업들의 추가 철수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 우리 대사관은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임.

시애틀총영사관

서북미 한국 스타트업 지원 협의회 발족

1. 사례 개요

- 시애틀에는 아마존, MS, T-mobile 등 미국 IT기업의 거점이 존 재하고 있으나, 한국 대기업의 판매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제한 적으로 미국 IT기업과 B2B 영업 거점만 존재하는 상황
- 다만, IT 관련 창업과 산업 트렌드 분석 등을 위한 여건이 좋은 상황으로, 당지 내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중소벤 처기업진흥공단 K-스타트업 센터가 존재하며, 한국계 스타트업 기업이 당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중
- 이와 관련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K-스타트업 센터장 및 입주사, 파트너사, IT 기업가 모임인 창발 관계자들을 창립 구성원으로 하는 서북미 한인 스타트업 지원 협의회가 출범

2. 공관 지원 조치 사항

- 23.11.22. 제1차 협의회 및 발족식을 개최
 - ▲ 한국 기업 현지 창업 및 진출 방안, ▲스타트업 기업과 현지 네트워크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

- 서북미 지역 스타트업 자율 협의회 출범의의
 - 시애틀은 실리콘 밸리와 더불어 MS, 아마존, 보잉 같은 첨단 기업이 존재하여 IT 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한국 대기업의 B2C 현지 생산·판매 법인 같은 지상사 보다 스타트업 창업이나 진출에 적절한 곳으로 판단
 - 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SC) K-스타트 업 센터와 함께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서북미 최초로 스타트업 협의회를 출범한 것은 역량 있는 한국 스타트업 진출 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
 -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진출 기관 및 IT 종사자 네트워크 간 공통 현안에 대한 고충과 해결 방안 논의 등 유익한 계기가 되 었다고 판단
-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시너지 창출
 - 우리 공관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SC) K-스타트업 센터를 통해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
 - 또한 창발 및 KSEA,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더불어 차세대 리크루팅 박람회, 인력개발 세미나, IR 투자 로드쇼 등 현지 취업 및 창업 행사를 지원해 나갈 예정
 - 아울러 향후 정보 및 네트워크를 공유를 위한 행사를 반기별로 지속할 개최 하면서 동 자율협의회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

알마티총영사관

심켄트 발전소 건설 지원

1. 사례 개요

- 2023년부터 우리 기업 A사는 카자흐스탄 전력 수급 안정 및 2060 탄소 중립화를 위해 심켄트 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함.
- A사는 프로젝트 관련, 발주처와 A사 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주알마티총영사관에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요청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A사는 주재국 정부, 발주처 및 현지업체(컨소시엄) 간 발전소 건설 관련 논의를 위해 발주처 관련 인사들의 한국 체류 허가 (K-ETA)를 신청하였으나 일부 인사 불허로 인해 주알마티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10월-11월 동안 K-ETA 불허를 받은 발주처 인사들에 대한 한국 방문을 위해 법무부 관계부서에 동 프로젝트가 한-카양국 경제협력에 있어 갖고 있는 중요성과 발주처 인사들의 방문이유 등에 대해 유선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함.

4. 공관 조치 결과

■ 우리 공관의 요청을 토대로 동 인사들에 대한 K-ETA가 승인되면서 적시에 프로젝트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 프로젝트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현재 K-ETA 신청 시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정보를 통해 승인·불허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불법체류 다발 국가인 주재국 의 특성상 중요 프로젝트 혹은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에게 도 K-ETA 불허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상기 일반정보 외 비즈니스 혹은 회의 참석 등의 목적을 가진 인사들의 경우 별도 관련 문서 첨부를 통한 추가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알마티총영사관

알마티 공장 건설 지원

1. 사례 개요

- 2023년부터 B사는 중앙아시아 및 CIS 시장 대상 공장 생산품 판매 목적으로 알마티 인근에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함.
- 완공 이후 공장 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한 원활한 생산 업무 수 행을 위해 주알마티총영사관에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요청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7월 B사는 생산 인력의 장기 연수를 위한 한국 체류 방법 및 비자 등 정보에 대해 주알마티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7월 주알마티총영사관은 유선 및 메일로 공장 생산 인력 들의 장기 연수를 위한 한국 체류 방법 및 비자 등에 관해 설명 해주는 등 영사 조력함.

4. 공관 조치 결과

■ B사는 공관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 현지 생산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함.

5. 시사점 및 참고사항

■ B사의 공장 건설은 알마티 지역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련 자재 수출 등으로 한-카 교역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됨.

인도대사관

인도 진출 한국기업 CSR 우수사례집 발간

1. 사례 개요

- 인도는 회사법(Companies Act)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강제 지출하게 하였고, 미 이행시 제재가 취해지는 유일한 국가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우수 CSR 활동을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CSR 활동을 해야 하는 진출 기업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도 정부와 인도인 대상으로 한국기업 이미지 제고

2.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2.10월-11월 CSR 우수사례 공고
- 2022.12월 총 39건의 사례가 모집되었으며, 그중 5건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사 명의로 'CSR 우수 기업 증서' 수여
- 2023.1월 한글본 CSR 우수사례집, 영문본 K-CSR 각각 발간

3. 공관 조치 결과

- CSR 우수사례집을 한국어와 영어판으로 각각 발간하여 이를 우리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인도 지역 사회와 정부에 널리 전파
- 특히,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각종 행사에 영문 K-CSR 책자가 배포되었으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인도에서 다양한 분야의 CSR 활동을 통해 인도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홍보
- 인도에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새로 CSR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업에게 좋은 가이드라인 제시

- 사례집은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이 앞으로 인도 내에서 CSR 활동을 하는 데 좋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임.
 -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CSR 활동은 필수적인바 기업들은 선행 우수사례들을 참고해 각 기업의 CSR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 CSR 활동은 우리 기업과 인도 사회가 함께 발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발전을 위한 구체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주 재국 사회와 우리 기업 간 신뢰 형성 구축에 큰 역할을 하며, 대 사관에서는 인도 진출 한국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을 현지인들 대 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 진출기업들은 기업활동을 통해 인도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근로자와 그 가족들 및 지역사회 구성원 전반의 삶의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카자흐스탄대사관

중소기업의 무역거래 사기 피해 예방

1. 사례 개요

- 2023.9월 한국 중소기업인 A사는 카자흐스탄 석유를 구매하여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내 석유기업인 B사로부터 약 22만 달러의 석유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2023.9월 중소기업인 A사는 해당 거래대금이 너무 크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카자흐스탄 B사가 A사에 제시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가 발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빙서류의 진본 여부 확인을 대사관에 요청함.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8월 A사는 관련 서류가 카자흐스탄어로 작성되어 있어 한국 내 관련 기관으로부터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3.9월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소재 대사관에 협조를 요청함.

3. 공관 지원 조치 사항

- 2023.9월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B사와 유선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이에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공한을 보내 관련 증빙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요청하는 한편, 카자흐스탄의 아타메켄(상공회의소)과 KOTRA 알마티 무역관 등에 카자흐스탄 B사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확인·협조를 요청함.
- 2023.9.25.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에 유선 등을 통해 관련 서류 확인 결과를 설명하고 아래 이유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함.
 - 제출된 서류 주소에 B사가 없고, 공문서에 오기(誤記)가 너무 많으며, 증빙서류 등록기관과 승인기관이 달리 표기되는 등 정부가 발급한 문서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함.
- 2023.10월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접촉을 통해 관련 서류가 위조(에너지부는 증빙서류 미발급 입장)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함.

4. 공관 조치 결과

- 2023.9.25.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A사에 관련 내용을 즉시 이 메일과 유선전화로 전달하고, B사와의 계약체결과 송금 등 금전 적 거래의 중단을 권고함.
-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공공기관, 지상사협 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외교부 본부와 기업지원 기관 등에도 보고함.
- 2023.10월 주카자흐스탄대사관은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서류 위 조의 최종적 의견도 이메일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A사에 전달함.

- 한-카자흐스탄 정부-기업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 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방지함.
-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되고, 석유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국제 에너지 가격이 높게 유지됨에 따 라 무역 사기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 해당 건 이전에도 무역 사기 의심 사례 등이 우리 대사관에 접수되기도 함.
- 특히, 최근 무역 사기의 수법이 정교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정상 거래하던 업체가 아니고 관련 서류에 의심이 생길 때에는 정식 계약 체결과 대금 송금에 앞서 꼼꼼하고 치밀하게 관련 서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은 기업지원 기관인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중 소기업법률지원단 등과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한편, 유 관기관들을 대상으로 무역 사기 예방을 위한 대면 혹은 온라인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탄자니아대사관

광물 수입 기업의 사기 피해 해결 지원

1. 사례 개요

■ DR콩고의 구리제품을 수입하려다 사기 피해를 본 우리 기업을 지원

2. 기업의 대응조치

- 2023.7월 우리 기업 A사, 구리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DR콩고의 셀러에 접촉
- 2023.8월 셀러측은 해당 제품이 탄자니아에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A사는 창고를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 일부 지급(10만 불)
- 2023.9월 이후 셀러가 보낸 서류를 확인하였으나, 진위여부 의심

3. 공관 지원조치 사항

■ 2023.9월 셀러가 제시한 보관영수증(SKR)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물류회사임을 확인하였으며, 여타 탄자니아 선적을 위한 서

류들을 요청하였으나 셀러는 협조해 오지 않음. 기타 서류 검토 결과 및 그간의 셀러측 행동으로 보아 사기인 것으로 판단, 경찰 에 사건을 접수할 것을 A사 측에 권유

■ 2023.9월 A사와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서 작성 지원

4. 공관 조치 결과

- 2023.10월 A사는 경찰에 신고 후 셀러에게 식사를 제안하며 면담 요청, 식사 장소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사기 용의자로 서 셀러 체포
- 2023.10월 셀러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해라고 주장 했으나 경찰은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셀러 구금
- **2023.10월** 셀러는 A사와의 합의를 요청하여 피해 금액 10만 불 전액 회수

- DR콩고 국적자가 탄자니아 파트너와 현지에서 활동하였고, 대금 은 케냐로 송금이 이루어진 국제적인 사기 사례로 관찰
- 탄자니아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 촉구 및 광물 투자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화기해 나갈 필요